

석사학위논문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문 미 라

2009년 2월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

지도교수 김 동 전

문 미 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문미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위 원_____인

위 원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2월

Hwagyos's Settlement and Social Status
in Jeju Province in Modern Times.

Moon Mi-R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9.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	6
1. 한국 정착과정	6
2. 제주도 정착과정	11
1) 1920년(일제시대)~1945년(해방 전)	11
2) 1945년(해방 후)~1950년(피난선 해상호 입도)	14
III. 제주도 화교의 사회적 위상	20
1. 제주화교소학교	20
2. 화교의 경제활동	31
3. 화교에 대한 규제와 한계	36
IV. 구술자료를 통해서 본 화교의 생활상	42
1. 허연경(許延經)의 사례	42
2. 양낙산(楊樂山)의 사례	47
V. 맺음말	53
참고문헌	55

표·사진 목차

<표 1> 화교인구의 증가 추세(1883~1910년)	7
<표 2> 화교의 직업(1916~1922년)	8
<표 3> 화교와 일본인의 직업 비교(1922년)	9
<표 4> 한국인·중국인·일본인의 최고 납세자(1922년)	10
<표 5> 제주도 화교의 인구(1923~1926년)	13
<표 6> 지역별 제주 화교의 호구 수(1930년)	13
<표 7> 직업별 제주 화교의 호구 수(1925년 말)	14
<표 8> 제주도 화교소학교건립의 지역별 성금내역(1957년)	27
<표 9> 제주지역 화교의 상호변동과 경제활동(1957년)	34
<표 10> 화교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	39
<표 11> 제주도 화교 인구(1999~2007년)	41
<사진 1> 1953년 제주화교소학교 1회 졸업사진	50
<사진 2> 1957년 중화민국공군기 제주공항도착기념 양낙산과 화교소학교 학생들	51

Abstract

Hwagyos's Settlement and Social Status in Jeju Province in Modern Times.

Hwagyos are defined in the dictionary as overseas Chinese and their descendants who have settled down abroad, but still maintains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native country in terms of cultural, social, legal and political aspects.

Hwagyos first appeared in Korea, as Qing armed forces and 40 merchants serving the army stationed in Korean as a result of Joseon-Qing Merchant Sea and Land Trade Regulation in the wake of the Military Mutiny of 1882. Since then, Hwagyos have been a minority group for more than 100 years as of 2008. In spite of their long presence in Korea, not much research had been conducted on the history of Hwagyos before the 1980s.

Jeju province is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s south and east coast. In addition, relics like Osujeon (coin used in China around the 1st century) show that there were some exchanges between China and Jeju province. Samacheon's 『Sagi』 says that after unifying China in 221 BC, the first emperor of Chin sent his retainer, Seobok, to Jeju province to look for a mythical herb providing eternal youth.

During the modern times, some Chinese migrated into Korea due to complicated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heir country. In addition, the Chinese Civil War of 1948 triggered another wave of Chinese immigration to Jeju province.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Hwagyos, a minority group which has lived in Jeju province for almost one century and explored their settlement and identification in Jeju province.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ussed a minority group in the recent phenomenon of multiculturalism.

It is not clear when Hwagyos first settled down in Juju province, but according to data acquir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ir descendants, it is presumed that it was

around the 1920s that they first settled down in Jeju province. This is confirmed by the record, displayed on the wall of Jeju Hawgyo elementary school, about the establishment of Hwagyo elementary school in 1951. The record says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we Hwagyos first settled down to Jeju.”

Hwagyos’ settlement period in Jeju province is largely divided into following two periods: the period between the 1920s and 1945, before Japan’s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period between 1945,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August 1950, shortly after the Korean War. During the second period, communist victory in the Chinese Civil War triggered the massive Chinese immigrant into other nations. In August 1950,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 ship carrying 80 Chinese refugees arrived in Jeju province. This was a massive refugee immigration which had not been detected in other provinces. The massive exodus of Chinese in 1950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as shut down, as the Cold War started after Communists won the Chinese Civil War.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about Hawgyos in Korea during Korea’s turbulent modern period from the 1880s to the 1950s. This study examined the way Hwagyos settled down and have lived as a minority group in Jeju province. Besides, it also sought the way they can live as integral members of Jeju society.

I. 머리말

화교(華僑)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중국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을 지칭한다. 화교 이외에 화인(華人), 화상(華商), 화족(華族) 등도 사용되지만, 통상 화교는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해외거주자, 화인은 중국 국적을 없지만 중국문화를 가지고 중국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화상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상인들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용어 중 주로 중국인의 해외 이주와 정착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으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화교를 선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¹⁾ 이러한 화교(華僑)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본국(중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사회적·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²⁾’을 의미한다.

화교라는 말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등장한 계기는 일본 요코하마에 살던 중국 상인(商人)들에 의해서이다. 즉 그들은 1898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자신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화교학교(華僑學校)」를 세운 데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09년 청국(淸國)의 농공상부(農工商部) 대신(大臣)의 상소문(上奏文)에 이 용어가 쓰여 지면서 공식화 되었다.³⁾

이러한 화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한 후 청국의 군대와 40여 명의 군역상인(軍役商人)을 주둔시킨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의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⁴⁾ 우리나라에 이주한 후 100여년이 지난 2008년 현재까지 화교는 한국 내 소수민족집단으로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다른 민족에 비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교의 정착역사와 그들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었다. 그러나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일찍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화교들의 자본이 중국 내에 투자되면서 화교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관심이

1) 이병인, 「근대중국의 해외이민과 ‘고국」, 『동양사학연구』 제103편, 동양사학회, 2008, 145쪽.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두산동아, 1999.

3) 박은경, 『한국 화교사회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97쪽.

4) 담영성(詹英盛), 『조선 말기의 청일 상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13쪽.

증폭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근현대 한국 화교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비록 소수이지만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⁵⁾ 1992년 한·중 수교 이전까지는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교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이 적었지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경제·문화적 접근성이 높아졌고 특히 정부차원에서 1997년 외환경제위기이후 해외의 화교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역사학 분야에서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는 화교의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체성·인권·화교상술·화교의 언어변화·화교의 교육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⁶⁾

최근에는 전체적인 한국화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천·부산·군산 지역 등 개항기 항구도시였던 지역의 특색에 맞춰 화교의 거주지역이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개발을 위해 동남아의 부유한 화교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교에 대한 연구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지역에서는 화교연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가장 교류가 많았던 항구일 뿐만 아니라 인천 선린동에 대규모 차이나타운(China town)을 조성하는 등 인천지역에 화교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⁷⁾

둘째, 부산지역에서는 부산 거주 화교들이 어떻게 현지화(現地化)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연구되었다.⁸⁾ 부산 거주 화교의 역사와 그들의 경제활동 및 부산 화교학교의 현지

5) 박은경, 「화교사회와 그 문제점」 『기독교 사상』 254호, 대한기독교서회, 1979.
 _____, 『한국화교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_____,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통권 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6) 조홍윤, 「한국화교의 고통과 고민」 『민족과 문화』,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7.
 양필승, 「한국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2000.
 박기철, 「화교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5집, 평택대학교, 2001.
 이병인, 「근대중국의 해외이민과 ‘고국」 『동양사학연구』 제103편, 동양사학회, 2008.
 박은경,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통권 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장수현, 「한국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 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2001.
 이재광,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정체성: 화교 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30집, 중국학연구회, 2004.

7) 이재정, 『한국의 화교거주지 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옥련, 「청일전쟁 전 인천과 요코하마 화교사회」 『한국학연구』 제1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류제헌, 「인천시 화교가의 성쇠과정: 1884~1992」 『문화역사지리』 제18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화 교육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에서 화교의 이주·정착과정을 다루고 있다.

셋째, 군산지역에서는 이곳에 정착한 여씨가를 사례로 하여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해 연구되었다.⁹⁾ 특히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연구를 위해 구술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화교인 여씨 집안의 생활사와 정체성 변화를 연구했다.

이밖에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활동(1905~1955)과¹⁰⁾ 전주 화교사회를 통해 한국 화교사회를 고찰¹¹⁾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서는 제주화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동·남해와 근접해 있음은 물론이고 오수전(五銖錢 : 기원후 1세기경 중국에서 주조)과 같은 화폐유물이 제주북부 해안포구에서 발견되어 제주도와 중국은 일찍부터 경제교류가 이루어져왔다.¹²⁾ 심지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도 기원 전 221년 중국 진나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불로초(不老草)를 구하기 위하여 서북이라는 방사(方士)를 제주도에 파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 중국과 제주도와의 인연은 실로 깊다고 할 수 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일제강점기의 복잡한 정치·경제상황에서 화교의 경제적 이민과 1948년 중국 내 국공내전으로 인한 피난 이민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제주도 이주 역사는 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중국과의 교류 역사를 감안할 때 중국화교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도 화교에 관한 연구사례로는 2000년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韓國華僑研究會)에서 발표한 교토창성대학 신재경의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논문이 유일하다. 그는 제주출신 재일학자로서 화교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인 제주도 화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제주도에 정착한 화교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교들이 제주도에 어떻게 정착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문제점이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신재경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면서도 근현대 제주도에 들어온 화교들의 정착과정과 그들의 사회적 위상과

8) 이종우, 『한국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9)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한국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2008.

10)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활동(1905~1955)」 『대구사학』 제80집, 대구사학회, 2005.

11) 이화승, 「전주 화교사회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고찰」 『사림』 26권, 수선사학회, 2006.

12)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성립과 교역」 『고대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4쪽.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소수 민족 집단을 이루고 있는 화교사회를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II장에서는 제주도 화교의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1880~1950년대 한국 화교의 역사와 정착과정을 선행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것은 제주도 정착과정을 이해하는 큰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들의 입도시기를 검토했다. 물론 화교들의 제주도 입도시기에 대한 구분은 제주도에 처음 입도 한 화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 화교 자손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한 결과 최초로 화교가 입도한 시기는 1920년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제주 화교소학교에 걸려있는 1951년 화교소학교설립 당시 내력에도 ‘우리화교 교포가 제주에 온지도 30여년이 지났다.’라는 기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화교의 입도시기를 둘로 구분하였다. 즉, 경제이민이 주가 되었던 1920년부터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패망하기 전과 1945년 이후에서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8월까지이다. 특히 두 번째 시기는 1948년 중국 내의 국공내전이후 공산당의 중국본토를 장악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화교들이 집단적으로 대거 외국으로 이동한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제주도 화교의 정착은 1950년 8월 한국전쟁직후 대규모 피난선 한 척이 80여명을 태우고 입도하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화교의 피난이민에 해당된다.

1950년 한국전쟁이후 중국인의 대규모 이민은 중국 내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해외이주가 차단되어 한국으로의 이주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1950년 8월 해상호 입도 이후 새로운 화교들의 이주는 사실상 차단되었다. 1960~1980년대에는 일찍이 한국에 정착했던 한국화교들이 제3국으로의 재 이동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의 대 화교 차별정책으로 인해 생존환경이 점차 어려워지는 반면 구미 지역의 이민정책이 완화되면서 한국의 화교들은 이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다.¹³⁾

III장에서는 1920년~1950년 제주에 정착한 화교들이 제주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화교소학교설립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경제활동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었던 화교에 대한 법령 및 정책의 내용도 함께 고찰했다.

13) 박은경,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통권 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205쪽.

IV장에서는 1925년 제주에 입도하여 성산포에서 포목점 점원으로 일했던 허경환(許鏡寰, 1905~1962)의 자손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의 구술자료를 통해 화교들의 생애에 담겨진 생활사를 분석했다. 또한 1950년 8월 피난선을 타고 온 양낙산(楊落山, 1896~1961)의 친족인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양병립(楊秉立, 1971년생)·양덕훈(1978년생)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한 양낙산의 생애를 함께 정리함으로써 제주도에 정착한 화교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구술조사를 병행했다. 문헌자료로는 1929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제39편 생활상태조사(基2)』와 『제주도세요람(濟州島勢要覽)』에서 당시 제주도 화교(華僑)의 인구수와 직업별 호구 수를 분석했다. 또한 제주도에 거주하는 화교 1·2·3세대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화교들의 생활사를 정리했다. 여기서 구술자료는 사료로 이용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¹⁴⁾ 이러한 구술자료는 역사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보조수단이 되므로 최근의 역사학 연구에서도 하나의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 채용되고 있다.

신문자료¹⁵⁾는 1950년 8월 해상호 입도 시기 <제주신보>의 내용을 분석했다. 신문자료를 통해 입도 날짜와 인원수, 당시 제주도 사회의 반응 등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제주시 삼도 2동 909번지에 위치한 <제주화교소학교> 교무실에 걸려있는 사진액자에 담겨있는 내용도 자료로 활용했다. 이에 의하면, 1951년에 학교설립 당시 제작된 액자에는 학교건립당시 내력과 서울·부산·인천·목포·제주지역의 성금자와 상호(商號)를 통하여 각 지역별 화교의 성금액이 기록되어있다. 1965년 대만정부로부터 받은 학교설립 허가증과 1974년 학교에 신식 전화기 설치를 위한 성금자와 모금액에 대한 내용도 각각 액자에 기록되어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화교 성금자와 상호를 분류하여 여러 화교들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경제활동과 상호의 개설시기와 변천과정도 알아보았다.

14)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2005, 39쪽.

15)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년 8월 17일.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년 8월 20일.

II.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

1. 한국 정착과정

화교의 제주도 진출과정을 살피기 앞서 화교의 이주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국 전체 화교의 진출을 살피고자 한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서양의 산업혁명은 서양의 산업화를 가속 시켰다. 세계화의 이런 추세 속에 중국이 먼저 영국과의 아편 전쟁을 통해 1842년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을 맺으며 중국의 개항이 시작되었다. 청 왕조는 서구 열강에 의해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처럼 개항을 늦게 시작한 조선 한반도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개항을 요구하였다.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청의 군대를 요청하였다.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40여 명의 군역상인(軍役商人)을 대동하였다. 이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현재의 인천공원 부근 5,000평 부지에 화교거주지가 형성되었다. 그것이 한국화교 역사의 본격적 시작이다.¹⁶⁾ 또한 두만강변의 회령(會寧), 경원(慶源)과 의주(義州) 지역에서 조선과 청국의 관원의 감시와 통제하에 연 1회(12월 20일 경) 20일간 열리는 시장(또는 淸市라고 부른다.)를 통해 양국의 물품이 교환됨으로 양국인의 큰 왕래가 이루어졌다.¹⁷⁾ 그러나 체류기간이 일시적이어서 화교가 한반도에 이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

1882년 9월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1883년 3월의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 같은 해 6월의 「회령통상장정(會寧通商章程)」등으로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화교 인구는 차츰 증가하였다.¹⁸⁾

<표 1>에서는 1883~1910년의 화교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885년까지 청군이 주둔하였던 해에는 화교의 인구수가 서울지역은 4배, 인천은 5배, 전국적으로 2배의 인구 증가를 보여 준다.

16) 담영성, 『조선 말기의 청일 상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13쪽.

17) 고승제, 「화교 대한이민의 사회사적 연구」, 『백산학보』, 1972, 137~175쪽.

18) 박은경, 『한국 화교사회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97쪽.

<표 1> 화교인구의 증가 추세(1883~1910년)¹⁹⁾

(단위: 명)

시기 지역	1883년	1884년	1885년	1906년	1910년
서울	82	99	353	1,363	1,828
인천	54	48	235	714	2,886
전국	209	354	700	3,661	11,818

1898년 중국 산둥(山東)에서 북청(北淸)운동²⁰⁾이 발생하고 결국 1901년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8개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중국인의 해외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화교의 고향 중 산둥출신이 많은 이유는 이 시기 북청운동의 좌절이후에 산둥지역 경제가 더욱 혼란하고 고난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산둥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인천지역에 화교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남자들은 신변보호와 돈을 벌기위해 외국으로 피신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으로 왔다.

일제시대 초기의 화교의 직업은 <표 2>이 보여 주듯이 상업·교통에 종사하는 수가 반이상이고 다음은 농축업, 공업·광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기타 업무가 10%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기타 업무의 직업은 대부분 노동자로서 산동성의 정치적 이유와 자연 재해로 인한 경제 이민을 온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²¹⁾

19) 박은경, 앞의 논문, 101쪽.

20) 북청사변(北淸事變), 단비(團匪)의 난, 권비(拳匪)의 난이라고도 한다. 산둥성[山東省] 부근에는 청나라 중기부터 백련교(白蓮教)의 한 분파인 의화권(義和拳)이라는 비밀결사가 있어 한국의 태권도와 같은 권술(拳術)을 전수하고, 주문(呪文)을 외면 신통력이 생겨 칼이나 철포에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믿었다. 1894년의 청일전쟁 후 열강(列強)의 침략은 중국을 분할의 위기에 몰고, 또한 값싼 상품의 유입 등으로 농민의 경제생활은 파괴되었다. 특히 특권을 지닌 그리스도교의 포교는 중국인의 반감을 사 배외적인 기운이 높아갔다. 의화권은 그리스도교회를 불태우고 그 신도들을 살해하는 반(反)그리스도교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산한 많은 농민들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21) 박은경, 앞의 논문, 106쪽.

1921년~1925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화교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한국인 노동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표 2> 화교의 직업(1916~1922년)²²⁾

(단위: 명)

시기 \ 직업	1916년	1919년	1922년
농림·목축업	2,658(15.7%)	2,501(13.5%)	5,322(17.2%)
어업	-	60(0.3%)	20(0.1%)
공업	2,427(14.4%)	1,095(5.9%)	3,391(11.0%)
상업·교통업	8,770(51.9%)	11,055(59.5%)	15,967(51.8%)
공무자영업	575(3.4%)	1,371(7.4%)	584(1.9%)
기타직업	2,141(12.7%)	2,392(12.8%)	4,708(15.3%)
무직	333(1.9%)	114(0.6%)	834(2.7%)
합계	16,904(100%)	18,588(100%)	30,826(100%)

<표 3>에서는 화교와 일본인의 직업을 비교하여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22년 당시 한국내 중국인 일본인의 총인원수를 100으로 기준하여 직업별 %로 작성하였다. 일본은 공무(公務)의 수가 34.5%에 달하였으나 화교는 1.9%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통치국으로서 공무에 자국민을 기용을 선호하였음을 보여준다. 상·농·광업과 기타 노동에는 화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이민 집단의 한국에 있어서의 활동의 상이함을 보여 준다.²³⁾

22) 박은경, 앞의 논문, 107쪽.

23) 박은경, 앞의 논문, 106쪽.

<표 3> 화교와 일본인의 직업 비교(1922년)²⁴⁾

국적 \ 직업	화교	일본인
농림·목축업	17.2%	10.5%
어업	0.1%	-
공업	11.0%	16.3%
상업·교통업	51.8%	30.6%
공무자영업	1.9%	34.5%
기타직업	15.3%	4.8%
무직	2.7%	0.1%
합계	100%	100%

더욱이 1911년 신해혁명으로 2000여년의 전제 정치가 몰락하였다. 중국은 더욱더 혼란에 빠졌고 특히 군벌정치가 등장하면서 농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이 심화되고 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땅과 일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상업·농업·노동 등의 직업을 가진 중국인이 증가하자 일본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 청상(淸商) 보호규칙에 의해 중국인의 거처를 서울, 인천, 부산, 원산으로 국한하였다. 하지만 1910년 8월 통감부령(統監府令) 「조약에 의해 거주지 자유를 갖지 않은 외국인에 관한 건」에 다시 외국인 거처를 제한하였다. 이는 규정이 있어도 화교 이주 제재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새로운 규정을 또 제정함을 나타내고 있다.²⁵⁾

일제 통치하에서도 화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교의 경제적 세력이 강화되었다. 1922년 한국내 최고 납세자는 화교 담걸생(譚傑生)이었다. <표 4>에서 화교의 세목(稅目)이 영업세를 제외하고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록 화교 한 개인의 고액 납세이지만 이 당시 한국에서 화교의 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24) 박은경, 앞의 논문, 107쪽.

25) 박은경, 앞의 논문, 116쪽.

<표 4> 한국인·중국인·일본인의 최고 납세자(1922년)²⁶⁾

(단위: 圓)

세목 \ 국적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토지세	1,083	2,461	1,157
가옥세	439	1,255	393
영업세	650	856	1,250
호구세	612	1,576	1,557
합계	2,784	6,148	4,357

1937년 중·일전쟁이 발기하자 화교는 한국내에서 일본의 적국으로 탄압을 받게 되었다.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던 화교 사회가 사실상 무너지고 무역상은 폐점되었다. 일제시대 말에는 철공장, 술·쟁기 공장도 남북한 통틀어 10여개소 뿐이었고 소수의 음식점만이 지탱해 나갔다. 소규모의 제분(製粉)공장이 인천에 3개소, 평양에 3개소, 부산에 1개소, 서울에 3개소가 남아 있을 정도였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은 조직적 통치를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규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6년 한국화교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의 80%를 독차지한다.²⁷⁾ 그러나 화교의 번창은 1949년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자 중국현지 물품의 무역이 주가 되던 화교 무역업에 차단을 주게 되었다. 또한 1950년 초 한국 정부의 창고봉쇄령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 화교의 경제활동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후에 화교의 직업변화에도 무역상에서 요식업으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한국 화교의 1882년 임오군란 직후~1950년대 한반도 전체의 화교의 역사와 형성과정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에서는 1920년~1950년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까지 제주도 화교의 정착과정과 사회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26) 박은경, 앞의논문, 117쪽.

27) 박은경, 앞의논문, 119쪽.

2. 제주도 정착과정

1) 1920년(일제시대)~1945년(해방 전)

제주도에 처음 입도 한 화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나 제주도 화교의 자손들의 구술 구술자료를 통한 자료 수집결과와 1951년 제작된 제주화교소학교 설립 내력에 보면 <우리화교가 제주에 온지 30여년이 되었다.>²⁸⁾라는 기록으로 보아 확인 가능한 최초화교의 입도시기는 192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1920년대 이후 입도한 왕정춘(王亭春, 1905~1970)의 자손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과 허경환(許鏡環, 1905~1962)의 자손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의 구술자료를 통해 1920년 입도와 정착과정을 알아보았다.

대부분 이 시기 화교들은 산동지역의 혼란한 정치 상황 및 흉년과 홍수로 지속된 가난을 피해 돈을 벌기 위한 경제 이민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가족단위 이민 보다는 젊은 가장이나 청년위주의 계절이민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사꾼이거나 목공(木工), 석공(石工) 등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중국, 일본에 비해 개항을 늦게 시작하고 산업화가 늦은 한국은 이러한 기술자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할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근현대식 건물인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도립병원 건축에 그들이 직접관련 되었다고 한다.²⁹⁾

1920년대 제주에 입도한 왕정춘(王亭春, 1905~1970)은 고향이 산동반도 래양(落陽)으로 가난한 농사꾼 출신으로 중국농촌의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가까운 조선의 인천으로 정계룡(丁開龍, 1907~1970), 장자미(張子美, 1902~1970), 조맹례(趙孟禮, 1902~1958)등의 7·8명과 함께 경제 이민을 왔다.³⁰⁾ 대구·부산 등 다른 화교들이 이미 정착해 있는 지역을 돌다가 결국 다른 화교집단의 텃새가 없는 제주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들은 인천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이민으로 대부분 젊은 청년 이었고 정착한 후 고향에서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오는 상황이었다.³¹⁾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된 최초의 화교의 연도가 1936년이다.³²⁾ 1920년에 입도한 왕정

28) 遡我僑胞旅居濟州經有三十餘年之歷史. 제주시 삼도 1동 909번지 제주화교소학교 소장 자료.

29)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7. 12. 1. 구술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30)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8. 10. 1. 구술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31)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18. 구술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춘(1905~1975), 정계룡(1907~1970), 장자미(1905~1968), 조맹례(1902~1958) 등이 제주에 입도 한 후 결혼하고 정착하여 2세를 낳고 등록했을 시기라고 유추할 수 있다.³³⁾

제주도 화교는 제주시와 서귀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성산포에도 정착해 있었다. 그것은 제주도가 일본의 규슈와 중국의 상해의 중간지점으로 선박의 기항지로 서귀포와 성산포가 이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일제시대 화교 무역상들은 비단 및 삼베의 대중 무역으로 한국에서 우위에 있었다. 1926년 전체 화교 인구 46,541명 중 52%인 24,119명이 주단·포목상 등 상업에 종사할 정도로 화교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다.³⁴⁾

제주도 화교 허경환(許鏡寰 1906~1962)이 1925년 제주도 입도 당시 성산포에서 친척이 하는 포목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구술자료를 토대로 1925년도 제주도에 화교가 하는 포목집이 있었음을 알수있다.³⁵⁾ 또한 제주도 서쪽의 옹포리에도 화교가 다수 살고 있었다. 돼지고기 통조림 공장이 있어 작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³⁶⁾ <표 5>는 1920년대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1930년대가 되면서 여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고향에 처자식을 남기고 돈벌이를 나와 기반이 잡힌 후에 가족을 데리고 오는 화교 경제 이민의 전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32) 제주출입국관리소, 내부문서공개, 2007. 5. 7.

33)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7. 8. 2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34)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37쪽.

35)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18.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36) 신재경,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학회, 2000, 5쪽.

<표 5> 제주도 화교의 인구(1923~1926년)³⁷⁾

(인구 단위: 명)

구분 년도	호구 수	인구 (남 + 여)	제주도인구	일본인인구
1923	26	38 (36 + 2)	209,018	868
1924	22	50 (48 + 2)	214,584	792
1925	19	59 (55 + 4)	204,315	1,105
1926	32	87 (83 + 4)	209,841	1,083

<표 6>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조천·김녕·모슬포·성산포까지 이주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교의 거주 지역은 제주도의 해안 주변 지역위주로 분포해 있다. 제주도 화교의 직업이 대부분 상공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내륙지방으로의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주거의 형태가 이루어 졌다.³⁸⁾

<표 6> 지역별 제주 화교의 호구 수(1930년)³⁹⁾

(인구 단위: 명)

구분 주거지	호구 수	인구 (남 + 여)
제주읍	11	31 (27 + 4)
조천리	2	2 (2 + 0)
김녕리	1	2 (2 + 0)
서귀포	6	19 (19 + 0)
모슬포	2	5 (5 + 0)
성산포	2	7 (7 + 0)

37)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39편 「생활상태조사(其2)」 『濟州島』, 1929.
조선총독부, 昭和12년 『濟州島勢要覽』, 1937.

38)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7. 8. 2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39)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 39편 「생활상태조사(其2)」 『濟州島』, 1929.

<표 7>에서 1925년도 화교의 직업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직업은 상업 및 공업이며 그 외에 직업은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한반도 다른 지역의 상업·교통업의 종사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주도의 직업분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한국에서 상업·교통업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농업 종사자가 제주지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7> 직업별 제주 화교의 호구 수(1925년 말)⁴⁰⁾

구분 직업	호구 수	인구 수
농림·목축업	0	0
어업	0	0
공업	3	7
상업·교통업	16	52
공무원	0	0
자영업	0	0
무직	0	0
합계	19	59

2) 1945년(해방 후)~1950년(피난선 해상호 입도)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 영토에서 물러났다. 항일운동에 힘쓰던 장개석(蔣介石, 1887~1975)이 이끄는 국민당과 모택동(毛澤東, 1887~1975), 주은래(周恩來, 1887~1975)의 공산당은 서로 권력을 장악 하려고 대립이 더욱 심해졌다. 이 시기가 20세기 들어 중국에서 가장 격렬했던 전쟁 이었던 국공내전(1930~1949)의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점거하고 사회주의 체제인 중화인민공화국을 1949년에 선포하였다. 대만에서는 장개석이 자본주의 체제인 중화민국을 1950년에 수

40)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39편 「생활상태조사(其2)」 『濟州島』, 1929.

립하였다.

공산당의 지주층에 대한 핍박으로 많은 지주층이 공산당 특유의 인민재판 등으로 몰살당하거나 해외로 도피하였다. 1947년 가을 요녕성 장하현 석승도에는 해상운수(海上運輸) 사업으로 성공한 양낙산(楊樂山, 1896~1961) 일가(一家)가 있었다. 양낙산은 중국의 선박운수업으로 유명한 부자였으나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피해 1946년 5월 배 세척으로 요동반도에서 산둥반도로 피난했다. 1948년 한국 인천에 들어오지만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선원과 그 외의 사람들을 태우고 한 척은 중국으로 돌아갔다. 양씨일가는 인천에서 약 2년간 낮에는 육지에서 육체노동이나 장사 등을 하고 밤에는 배를 주택으로 삼아 살아갔다.⁴¹⁾

해상호가 1950년 8월에 제주시 산지항에 들어왔다.⁴²⁾ 1951년 제주도 화교는 약 250명이었다.⁴³⁾ 그 중 양씨일가 50여명과 인천, 부산지역에서 피난이민을 같이 온 화교가 약 30명으로 제주화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8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었다. 1950년 해상호가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 화교의 인구를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교의 이주 형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해상호의 제주도 입항은 지금까지의 화교이민과 다른 형태인 피난이민이었다. 초기이민은 남자만의 단순한 돈벌이 이민이었지만 피난이민은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이주한 것이었다. 1920년대의 경제이민이 아닌 1950년대에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으로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하자 그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이념적 이민이었다.

당시 한국의 국가방침은 反共이었다. 피난이민도 중국공산당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의 방침과 그들의 목적이 일치하였다. 해상호의 입항은 제주사회에 큰 관심을 주었던 것으로 그 당시 『제주신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中國人 避難民 來到 서울仁川等地華僑를 실은 장크船이 14일 山地港에 들어왔다. 帆船은 仁川港에 漂流 되어있던 것을 괴뢰군이 侵入 直後인 28일 中國人五十余名을 싣고 가진 苦難을 겪어가며 到着한 것인데 乘船者의 大部分은 楊樂山 일가 일행이다.⁴⁴⁾

41)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8. 10. 구술자료.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7.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42)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년 8월 17일.

43)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44)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년 8월 17일.

위의 자료에서는 중국인 피난선이 서울·인천 등지의 화교를 싣고 1950년 8월 14일 산지항에 입도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신문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중국인 50여명을 싣고 가진 고난을 겪고 제주도 산지항에 도착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양낙산 일가 일행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위의 자료에서 입도 화교의 수가 50여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1950년 8월20일 신문자료에도 40여명이 피난을 왔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50여명의 양씨일가와 30여명의 인천·부산 등지의 화교가 함께 왔음을 여러 구술을 토대로 알 수 있었다.⁴⁵⁾ 1950년 8월 17·20일의 제주신보에서도 인원수가 50여명에서 40여명으로 불일치한 것으로 보아 양낙산 일가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온 30여명의 화교의 수는 포함하지 않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해상호 입도 시기 인원수를 50여명의 양낙산 일가와 30여명의 인천·부산지역에서 피난에 합류한 화교수를 모두 포함한 80여명의 입도로 정하였다.

다음의 자료에는 피난선이 입도 하였을 당시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동초등학교에 임시 수용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초등학교의 여직원일동이 2,000여원(圓)⁴⁶⁾의 성금을 모아 약간의 떡을 사서 피난선을 도왔다는 내용도 있다.

中國人 避難民에 同情 東校女職員一同美舉

國際友愛에 피어난 佳話 이것은 또 戰時 混亂속에 피어난 따뜻한 人類愛와 佳話한 토막 卽 지난 14일 仁川方面으로부터 北韓괴뢰의 侵入을 避하려는 四十余名의 華僑를 싣고 一路南航하여 當地에 入港한 장크船이 이었다함은 既報한바이나 이들 中國人避難民은 그동안 東國民學校에 收容되어 當局의 保護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의 苦境에 同情한 同校 女職員一同九名은 넉넉지 못한 手中에서 約二仟餘圓의 同情金을 거두어 若干의 떡을 買入하여 中國人들에게 餐應하였는데 이에 감격한 중국인들은 韓國官憲은 勿論一般民까지도 이같이 따뜻한 友愛를 아까지 않는데 謝하여 오로지 感激의 눈물

45)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7. 8. 20. 구술자료.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7. 구술자료.
 문태현(1942년생), 당시 8세로 제주시 건입동 산지항에 거주, 2008. 10. 4. 구술자료.
 송복립(宋福립, 1955년생), 2007. 7. 15. 구술자료.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8. 1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46) 쌀 1.5가마니 현재의 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을 금지 못한다고 말하였다.⁴⁷⁾

위의 신문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북한과 남한의 상황처럼 공산주의를 피해 피난 온 중국인들은 반공사상에 젖어있던 제주 도민들에게 환영 받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양씨일가의 큰 재산인 배 한척으로 일가 50명과 인천 화교 약 30명의 약 80명이 해로로 인천에서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군산, 여수로 피난하였으나 한국의 남해의 완도 부근 청산도에서 북한의 공작선으로 오인한 미군 전투기가 저공비행으로 해상호에 발포하였다. 그 때 4명의 사망자 중에는 양낙산의 장남도 있었다. 5일간 청산도에 피난했으나 그 배로 부산으로 향할 것을 결정하고 배에 오르나 다시 그 배는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군과 미군은 당시 어지러운 전쟁과 정세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 이민선을 부산항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 때 만난 것이 한국 해군 함정이었다. 한국해군은 사정을 듣고 중국민간인의 배인 것을 알고 제주도의 산지항(山地港)에 인수(曳引) 시킨다.⁴⁸⁾ 그들이 입도한 1950년 8월초 제주 지역의 대규모 화교이민이었다. 그 때 선장 김영관(金英觀)⁴⁹⁾이 나중에 제주도 군정 도지사가 되어 양낙산과 친분을 나누게 되었다.⁵⁰⁾

양씨일가는 낮에는 육지에서의 장사와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고 밤에는 배를 주택으로 삼아 제주도에 정착하였다. 인천을 출발할 때 동승했던 인천출신의 화교는 인천으로 돌아갔다.⁵¹⁾ 중국인 피난선이 어떻게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제주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관련기관이나 문서를 찾을 수는 없다. 다만 그 당시 배를 타고 왔던 생존자가 3명 살아 있고, 1925년대 이미 정착해 있던 화교 2세대들의 구술자료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양씨 일가는 입도 허가권이 나왔지만 제주도에 연고지나 정착할 집 한 채 없는 터라 약 8년여 동안 배에서 숙식을 하고 중국식 만두나 과배기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 팔고, 산지천 주변의 고구마 밭에서 일손을 도우며 돈을 벌며 생활하였다.⁵²⁾

47)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년 8월 20일.

48) 산지천 중국 피난선 전시관 자료참고, 2002년 개관.

49) 1925년생, 제주도 제 12대 도지사(1961~1963. 12), 現 운봉장학문화재단 이사장.

50)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8.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51) 문태현(1942년생), 2008. 10. 4. 구술자료.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8. 15. 구술자료.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2007. 7.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또한 1925년대 입도하여 이미 정착한 왕정춘(王亭春, 1905~1975)이 통역을 하고 그들이 제주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왕정춘의 아들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그 당시는 교통이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있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걸어서 제주시 산지항까지 아버지와 함께 갔었어...그때는 난 어리니까 무슨 일 인지는 모르지만 제주시에 가면 신나서 중국 피난선에서 놀고 배에서 파는 중국식 과배기 과자를 사먹었어... 아마 내 생각엔 우리 아버지가 그 양가네가 한국말이 서툴고 제주도 실정을 잘 모르니까 도와주러 갔던거 같아. 서귀포 집에서 갈 때는 우리집에서 만든 중국빵 큰 거 있는데 그거 가져다 주곤 했지.”⁵³⁾

양낙산 일가가 타고 왔던 해상호는 목재식이라 낡고 생활할 수가 없어 1965년 한림(翰林)의 통조림공장에 뿔감으로 팔려졌다. 배의 밑부분은 이미 물이 들어와 내천과 다름없었다. 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바다장어가 상당히 나와서 배를 구입한 사람들은 바다장어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다. 당시 산지천에 살았던 제주도민들의 구술자료들을 수 있었다.⁵⁴⁾ 양낙산 일가는 1952년 제주시 칠성통에 요동반점을 개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⁵⁵⁾

1950년 한국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지만 제주도에서는 한국전쟁 전 1948년 4·3사건이 일어났다. 4·3사건은 제주도민의 약 3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할 정도로 제주도 근대사의 큰 사건이었다. 어떤 사상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였다.

하지만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정착 화교에는 피해가 없었다. 대만의 국기(國旗)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를 집에 걸면 경찰측도 그 반대측도 화교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즉 치외 법권이 인정되었다. 목숨에 위협이 있었던 많은 제주도민이

52)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8. 15. 구술자료.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2007. 7.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53)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7. 8. 20. 구술자료.

54) 문태현(1942년생), 제주시 건입동 1226-6에 거주, 당시 8세로 제주시 산지항에 거주하였다. 2008. 10. 4.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55)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8.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화교의 집에 잠입하여 마루 바닥 밑에 쉼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숨었다. 생명을 구제받은 사람들은 화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⁵⁶⁾

1950년 제주도 남제주군 모슬포에는 전쟁 중에 '육군 제2훈련소'가 새로 생겨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져 그만큼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화교 허연경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에 있었던 자신의 집도 모슬포로 옮겨 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에 화교 약 10세대가 제주도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이주 화교와 난민으로써 들어온 화교의 약 3분의 2가 모슬포에서 장사를 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난민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화교는 1953년 한국전쟁인 휴전되면서 전쟁 전의 자신의 거점으로 돌아갔다.⁵⁷⁾

1948년 한국의 정부수립과 더불어 외국인 출입을 규제하자 중국인의 한국 이주가 중단된 상태였다. 중국에서서도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성립되자 이주 억제를 위해 외국 이동을 금지시키면서 화교들의 고향방문도 어렵게 되었다. 제주지역에서 1950년 한국전쟁직후 8월에 입도한 양낙산 일가의 해상호가 대규모 화교 이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다.

물론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과 제주도의 교류도 활발해 지고 왕래도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1920년~1950년대의 화교이민과는 다른 형태의 조선족의 유입과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화교의 입도시기를 1950년 8월 해상호 입도시기까지 연구하고 다음 시기부터의 화교이주 역사는 다음 연구과제로 미루겠다.

다음 장에서는 1920~1950년대 이주한 제주화교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주화교소학교 설립과 경제활동을 살펴보겠다.

56)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18.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57)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Ⅲ. 제주도 화교의 사회적 위상

1. 제주화교소학교

1920년대 일제시대의 제주도 화교사회는 화교소학교의 필요가 대두 되지 못하였다. 이는 남자 위주의 경제이민이 주가 되던 화교사회에서 화교 2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아직 나타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 8월 양낙산⁵⁸⁾ 일가의 대규모 피난선 입도 이후 양낙산 일가를 주축으로 화교 2세대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1902년 인천에 최초 화교학교⁵⁹⁾가 설립된 이후 제주 지역에서는 1951년부터 양낙산 일가에 의해 임시학교가 운영되었다.⁶⁰⁾

서울·인천·진남포·신의주·원산지역에는 1924년경 학교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에서 서울과 인천만 학생수가 각각 100여명이었고 지방에는 2·30명의 학생 밖에 없었다. 1945년까지 부산·영등포·군산·대구에 초등학교가 설립되었고 1942년에는 서울에 중학교가 증설되었다.⁶¹⁾ 한국전쟁이후 중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에 화교소학교가 증설하게 되었다. 부산·인천에는 1956년 중학교와 고등부까지 설립되었다. 광주·대구 지역에도 중·고등학교가 추가 설립되면서 화교는 고등교육까지 중국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⁶²⁾

58) 1896~1961년, 중국 요령성 藏河縣 出生하여 濟州에서 사망, 양낙산 일가는 제주에 대규모 화교이민의 시초이며 1950년에 제주에 입도하여 1951년부터 임시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 1950년대 이전 제주에 입도하였던 대부분이 木工, 石工, 農民출신이었던 화교이민자들에 비해 중국에서 배 3척을 가지고 피난을 올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양씨일가는 그 당시 중국내에서 엘리트층이었다. 1957년 학교건물을 매입하고 정식 화교소학교 건립까지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59) 광영초, 『한국의 화교정책과 한국 화교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5쪽.

1902년 인천지역 화교들이 자체운영하는 학교였다. 당시 화교 여계직, 우흥장, 주자양 등 인천화교 대표 30여명이 학생들을 모집하여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교실도 없어 인천 중화상회(현 인천화교협회)결방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교수 방식은 일종의 사숙 형태를 띠었다.

60) 모수분(募秀芬, 1955년생), 1985년부터 20여년동안 제주 화교 학교 교사로 재직, 2008. 5. 1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함.

61) 광병곤, 『한중수교이후 제한화교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2쪽.

62) 박은경,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통권 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202쪽.

제주도에서는 1951년 본격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인천·부산·목포 등 타 지역의 성금까지 동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57년에는 성금액으로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게되었다.

1965년 중화민국(臺灣)의 허가아래 소학교가 정식으로 허락도 받게 된다. 6년제 정식수업으로 대만 초등학교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었고 한중수교 전까지는 분기마다 대만정부로부터 3,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학생들의 학비를 합해 운영하였다.⁶³⁾ 제주화교소학교는 중국인 특유의 중화사상과 민족적 자부심을 알리고 화교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화교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였다.⁶⁴⁾

현재 제주시 삼도 2동 909번지에 제주화교소학교가 위치해 있다. 학교 내에는 학교 건립 당시 내력 및 성금내역을 기재한 목판 자료가 남아있다. 1951년부터 제주화교소학교의 내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1957년 성금이 완성된 후 성금자와 금액을 기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의 전반부는 1951년 학교건립의 내력에 대해 서술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1957년까지 모인 제주 뿐만 아니라 서울·인천·부산·목포지역별 성금내역이 서술되어 있다. 이 자료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화교 교포가 제주에 온지도 30여년이 지났고 2·30 단체가 있을 뿐이었다. 중화민국38년에(서기1949년)우리나라 주한대사(駐韓大使)가 생기면서 제주에 화상회(華商會)의 이름으로 불려 지기 시작하였다. 한국 6·25사변이후 화교가 제주에 피난을 오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화민국 40년(서기1951년) 대사(大使)의 명으로 자치구가 성립되었다. 어르신들은 건국의 바탕이 교육인데 어린이가 학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 비록 화교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지만 열렬한 조국에 대한 마음으로 먹고 입는 것을 절약함으로 성의껏 모금하여 임시 학교를 설립하였다. 민국40년(서기 1951년)쌍십절(10월10일) 소학교가 탄생하였다. 기금은 물론이고 고정적인 학교건물도 없어 매년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올봄 연합회 곡군성(曲君聲)부감⁶⁵⁾이 제주 차지구에 임명되어 온 후 돈을 조금씩 모

63) 모수분(募秀芬, 1955년생), 1985년부터 20여년동안 제주 화교 학교 교사로 재직, 2008. 5. 1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함.

64)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8. 15. 구술자료.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2007. 7.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아 학교를 이룰 수 있도록 손수 모금하러 다니셨다. 자치구장의 동분서주 노력한 결과 각지의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분들이 도와 주셨다. 주머니를 털어 모은 뜻있는 돈은 7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루어 60만원으로 건물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수리하고 단장하였다. 여기 교포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성금을 더 모아서 학교준공에 힘썼다. 학교 준공 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절로 돈을 모아 또 풍금하나를 얻었다. 완벽함을 이루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린이들이 안정된 정원(庭園) 안에서 음악공부도 만끽할 수 있음은 인자하신 어르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싶다. 무궁한 학교의 발전과 학교를 도와주신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왼쪽에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⁶⁶⁾

이 자료가 쓰여진 1951년을 기준으로 제주에 온지 30여년이 지났다고 밝히고 있어 본고에서 제주화교의 입도시기를 1920년부터 연구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2·30 단체는 단순 친목 모임계로서 화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인 화교들과 친밀한 유대를 가지고 상호 협조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⁶⁷⁾ 화교사회의 계는 일종의 보험 제도로서 경제적인 궁지에 처했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궁한 친구를 돕는 방법으로 화교사회의 보편화된 제도이다.⁶⁸⁾

1960년대 전까지 한국에는 한국화교 자치연합총회 조직하에 48개 화교 자치구가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국화교협회총회가 지방의 각 협회들을 관할하였다.⁶⁹⁾ 곡금성은 제주도 화교가 아닌 서울 한국화교협회총회에서 파견한 관리인데 부감이라는 호

65) 1951년 서울에 한국화교협회총회가 파견한 관리.

66) 邇我僑胞旅居濟州經有三十餘年之歷史僑胞不過二三十人無有團體迨民國三十八年我國大使駐韓濟州始有中華商會之名義韓國六二五事變華僑來濟避難人數較多民國四十年奉大使之命今而自治區成立諸領復感教育為健國之本兒童失學誠屬慚愧諸僑領雖然經濟凋弊均有熱愛祖國之誠意無論如何節食節衣設法成立臨時學校民國四十年雙十節華小學校誕生既無基金無固定校舍歷年一遷再遷勢有中輟之處今春聯合會曲君聲夫監選來濟區長提倡醵金興學承蒙該君代為請准捐薄區長自鼓舊勇奔走各華募損獲各地熱愛教育者慨解義囊遠成七十萬圓巨額除購橋舍六十萬圓外所餘寥寥修繕不激開銷而又動員當地僑胞亦得熱心教育者之襄助始鳩工材月餘竣工雖有認識不足之輩卒為正義斂跡而遠到完成目的諸僑胞檢查竣工時在笑談中樂損風琴一具以點綴美中不足今後兒童享受美滿樂園安心弦歌其能無歸功於仁者乎為識諸往而哲諸來俾學校發展無量今將出錢出力芳名錄列如左以示不朽

計開

熱愛教育者芳名如左

67)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68) 박은경,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통권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203쪽.

69) 곽영초, 앞의 논문, 34쪽.

칭은 감독·관리 한다는 의미이다. ‘제주 자치구’는 1969년 한성화교협회로 개편되기 전 한국화교의 조직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까지 제주화교소학교에서는 교장을 구장(區長)이라고 호칭하였다.⁷⁰⁾ 이는 제주화교소학교 교장이 제주 화교자치구의 회장역을 역임함을 뜻하고 제주화교소학교가 제주도 화교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자료의 전반부에서 설명하는 성금 70만원은 자료의 후반부에 총 금액 1,212,500원에서 제주지역 화교의 성금액 398,500원과 학교 기금 54,000원을 뺀 서울·인천·부산·목포 지역의 성금액을 뜻하는 것 같다. 이 당시 성금액의 가치는 후반부 성금내역에서 설명하였다.

목판의 후반부 성금내역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곡금산(曲金山) 선생 성금오만원정, 공경성(孔慶誠) 선생 성금오천원정
 장침평(張沾平) 선생 성금이만원정, 동흥공사(同興公司) 선생 성금오천원정
 침화상(浸和祥) 선생 성금이만원정, 복신공사(復新公司) 성금오천원정
 쌍오당(雙五堂) 선생 성금일천원정, 의흥행(義興行) 선생 성금삼천원정
 왕동명(王東明) 선생 성금일천원정, 동화공사(同盞公司) 성금삼천원정
 왕헌운(王獻雲) 선생 성금일천원정, 분풍공사(盆豐公司) 성금이천원정
 진화춘(秦和春) 선생 성금일천원정, 천창호(鈞昌號) 성금이천원정
 언영서(焉英西) 선생 성금일천원정, 쌍화흥(雙和興) 성금오천원정
 왕선지(王善芝) 선생 성금일천원정, 동창수조공장(東昌綏造工場) 성금오천원정
 대관원(大觀園) 선생 성금오천원정, 화교서국(華僑書局) 성금오천원정
 원생행(元生行) 선생 성금오천원정, 화생행(和生行) 선생 성금오천원정
 원동순루(元同順樓) 선생 성금오천원정, 이길흥(李吉興) 선생 성금오천원정
 정여성(丁汝星) 선생 성금오천원정, 왕치중(王治中) 선생 성금오천원정
 손죽산(孫竹山) 선생 성금오천원정, 손중단(孫中桓) 선생 성금오천원정
 곡귀지(曲貴芝) 선생 성금오천원정, 쌍창홍(雙昌紅) 선생 성금오천원정
 곽맹재(郭孟材) 선생 성금오천원정, 범일루(凡一樓) 선생 성금오천원정
 중화민(中華珉) 선생 성금오천원정, 대풍행(大豐行) 선생 성금삼천원정

70)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8. 구술자료.

태동루(泰東樓) 선생 성금오천원정, 아아원로(雅亞園老) 선생 성금오백원정
 진홍루(鎭紅樓) 선생 성금사천원정, 중흥루(中興樓) 선생 성금오백원정
 공후삼(孔後三) 선생 성금일만원정, 흥아원(興亞園) 선생 성금오백원정
 손양립(孫梁立) 선생 성금일만오천원정, 사해루(四海樓) 선생 성금일천원정
 손겸생(孫謙生) 선생 성금일만오천원정, 공영산(孔英山) 선생 성금일천원정
 공경지(孔慶志) 선생 성금오천원정, 포운생(包雲生) 선생 성금오천원정

인천시

공화춘⁷¹⁾(共和春)선생 성금이만원정, 쌍화공장(雙和工場) 성금이만원정
 평화원(平和園) 선생 성금이만원정, 쌍성호(雙盛號) 선생 성금일만원정

목포시

구상회(區商會) 성금 일만육천오백원정

부산시

양명초(梁明初) 선생 성금오만원정, 루예근(婁禮勤) 선생 성금삼만원정
 상일심(常一心) 선생 성금이만원정, 유호신(劉豪新) 선생 성금이만원정
 사상지(社尙芝) 선생 성금이만원정, 손필포(孫必浦) 선생 성금일만원정
 손보산(孫宝山) 선생 성금일만원정, 최인당(崔仁堂) 선생 성금일만원정
 이찬절(李贊輦) 선생 성금일만원정, 왕희정(王喜亭) 선생 성금일만원정
 소승상(蕭承爽) 선생 성금이만원정, 왕덕수(王德修) 선생 성금일만원정
 만흥공사(萬興公司) 성금일만원정, 원풍공사(源豐公司) 성금일만원정
 동성영(東盛永) 선생 성금일만원정, 유봉순(劉逢循) 선생 성금이만원정
 이경오(李敬五) 선생 성금사만오천원정, 천양(泉洋) 선생 성금이만원정
 왕세무(王世茂) 선생 성금이만원정, 이벽오(李碧梧) 선생 성금이만원정
 대흥행(大興行) 선생 성금일만사천원정, 임풍산(林豊山) 선생 성금팔천원정
 태흥사(泰興社) 선생 성금오천원정

제주시

71)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면서 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1920년부터 무역이 성행하자 중국 음식점이 생겨났으며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장면이 탄생하였다. 공화춘은 자장면이란 이름으로 처음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으로 이후 번성하다가 1984년 문을 닫았다. 건축적 가치와 생활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38-1, 38-2번지에 있다.

양낙산(楊樂山) 선생 성금십만원정, 한양정(漢陽亭) 선생 성금오만원정
 지성행(志成行) 선생 성금삼만원정, 문생행(文生行) 선생 성금삼만원정
 손비윤(孫丕倫) 선생 성금삼만원정, 운임춘(雲林春) 선생 성금이만원정
 왕정춘(王亭春) 선생 성금이만원정, 왕복산(王福山)선생 성금일만삼천오백원정
 장자미(張子美) 선생 성금일만이천원정, 영춘원(榮春園) 선생 성금일만원정
 동명호(東明號) 선생 성금구천원정, 유신원(維新園) 선생 성금일만원정
 동순원(東順園) 선생 성금칠천오백원정, 왕세향(王世香) 선생 성금육천원정
 양갱규(楊賡奎) 선생 성금사천오백원정, 양수명(楊樹銘) 선생 성금육천원정
 대관원(大觀園) 선생 성금육천원정, 정개룡(丁開龍) 선생 성금삼천원정
 담영경(譚永慶) 선생 성금이천원정, 주금장(朱金章) 선생 성금이천원정
 주금동(朱金棟) 선생 성금육천원정, 추여례(鄒如禮) 선생 성금삼천원정
 방보채(方寶彩) 선생 성금육천원정, 학교기금 성금오만사천원정
 양승진(楊乘珍) 선생 성금육천원정
 이하 방명록의 성함은 99명 모금액은 1,212,500원정
 중화민국 46년(서기 1957년) 1월 4일

당시 화폐단위 원(圓)으로 십만원에서 오백원까지 모금을 했으며 성금자의 이름 및 상호가 기록되어 있다. 전반부 내력에는 1951년부터 성금이 시작되었지만 총 모금액이 모이고 이 목판이 쓰여진 1957년을 기준으로 성금액의 규모를 확인해 보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⁷²⁾ 의하면 1957년 쌀 한가마니(80kg)에 1,591원이었다. 2007년 기준 쌀 한가마니는 150,368원이다. 1957년 성금액 10만원은 쌀 62가마니를 살 수 있는 현재의 가치로 93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액이었다. 총 성금액 1,212,500원을 환산하면 1957년 쌀 762가마니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2007년의 가치로 1억이 넘는 금액이다.

성금자의 호칭에 특이한 사항은 중국어에서 인칭대명사로 쓰이는 선생(先生)이 성금자 뿐 아니라 회사 상호에도 쓰여져 성금자를 존칭하고 있다. 구술과정 중 여러 화교들이 자료를 보고 상호에 ‘선생’ 자를 붙인 것을 중국어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지적하였지만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대로 표기하고 해석하였다. 액자의 글씨는 짙은 갈색의 목판에 검정 붓글씨로 쓰여져 있고 50여년의 시간이 흘러 글씨를 선명하게 알아보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지역 화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위

72)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지사항, 30번 첨부파일 화폐가치 계산 방법.

의 자료는 제주화교사회의 내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위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서울·인천·부산·목포·제주 지역별 성금자를 개인과 상호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중국어로 회사의 의미인 공사(公司), 공장(工場), 서점(書局)이라고 칭하여진 상호 뿐만 아니라 상호 끝자리에 루(樓)·행(行)·원(園)·상(祥)·사(社)·정(停)·호(號)·흥(興)·춘(春)으로 끝나는 이름은 회사나 중화요리점·상회·무역업이 대부분이므로 회사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목포지역 성금자는 구상회의 상호로 16,500원⁷³⁾의 성금만 있음으로 따로 표로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회사는 동흥공사, 침화상, 복신공사, 쌍오당, 의흥행, 동화공사, 분풍공사, 진화춘, 천창호, 쌍화흥, 동창수조공장, 대관원, 화교서국, 원생행, 화생행, 원동순루, 이길흥, 범일루, 대풍행, 태동루, 아아원로, 진흥루, 중흥루, 홍아원, 사해루 등의 총 25개로 분류하였다. 개인으로는 곡금산, 공경성, 장첨평, 왕동명, 왕헌운, 언영서, 왕선지, 정여성, 왕치중, 손죽산, 손중단, 곡귀지, 쌍창흥, 광맹재, 중화민, 공후삼, 손양립, 손겸생, 공영산, 공경지, 포운생 등 총 21명이다. 총 성금액은 271,000원⁷⁴⁾이다.

인천지역은 개인의 성금은 없었다. 이는 제주지역 화교사회와의 개인적 친분은 없었음을 나타낸다. 인천지역 회사는 자장면의 시초로 알려진 중화요리점 공화춘이 있고 쌍화공장, 평화원, 쌍성호 등이 있다. 인천지역의 총 성금액은 70,000원⁷⁵⁾이다.

부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회사의 성금보다는 개인별 성금이 많은 편이다. 이는 부산지역화교와 제주지역화교의 상호 개인적 친분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화교의 대부분이 부산에 친척이 있거나 부산출신 화교와 결혼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주도의 화교소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화교중·고등학교로 대부분 진학을 하고 지리적으로도 배를 이용한 교통상에서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이다.⁷⁶⁾ 부산지역 성금회사는 만흥공사, 원풍공사, 대흥행, 태흥사 등 4곳이 있다. 개인으로는 양명초, 루예근, 상일심, 유호신, 사상지, 손필포, 손보산, 최인당, 이찬절, 왕희정, 소승상, 왕덕수, 동성영, 유봉순, 이경오, 천양, 왕세무, 이벽오, 임풍산 등 총 19명이 있다. 부산지역 총

73) 쌀 10가마니 현재의 약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4) 쌀 170가마니 현재의 약 2,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5) 쌀 44가마니 현재의 약 6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6)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은 부산출신 화교인 아내와 선을 보고 결혼을 하였다.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은 제주에서 화교소학교를 졸업하고 부산화교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부산에 화교 친척들이 있다. 2008. 8.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성금액은 회사와 개인의 성금을 합쳐 402,000원⁷⁷⁾이다. 이 금액은 제주지역 총 성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부산지역과 제주지역 화교사회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제주지역 회사는 중화요리점 이었던 한양정, 지성행, 대관원과 제과점이었던 영춘원이 있다. 제주지역 성금자의 명단은 1957년 제주지역 화교의 대부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제주지역 개인과 회사의 성금 총 합계는 398,500원⁷⁸⁾이다.

서울, 인천, 목포, 부산, 제주의 화교들의 성금액과 기존의 학교기금 54,000원을 포함하여 총 1,212,500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제주도의 화교들은 서울·인천·부산·목포 등을 다니며 학교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에 열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에서는 제주도 화교소학교건립의 지역별 회사·개인별 금액으로 나누어 지역별 합계와 총 성금 합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표 8> 제주도 화교소학교건립의 지역별 성금내역(1957년)

(단위: 圓)

지역	회사·개인	금액	계
서울	회사	100,500	271,500
	개인	171,000	
인천	회사	70,000	70,000
	개인		
부산	회사	39,000	402,000
	개인	369,000	
목포	회사	16,500	16,500
	개인		
제주	회사	96,000	398,500
	개인	302,500	
	학교기금	54,000	54,000
합계			1,212,500

77) 쌀 252가마니 현재의 약 3,7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8) 쌀 250가마니 현재의 약 3,7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주화교소학교의 설립을 위한 모금은 1951년부터 시작되었고 1957년 학교건물의 설립도 이루어지지만 대만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기까지 1965년까지 걸렸다. 1965년 대만 정부로부터 받은 제주화교소학교건립 허가증이 현재 제주화교소학교 교무실에 남아 있다. 이 자료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교무위원회 교민학교 입안 증명서-초자 제 2308호 한국제주화교 소학교 설립요청 과정의 규정요건에 합의하여 교민학교 규정에 따른 규칙에 의거하여 스스로 특수한 명령을 행사할 수 있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이 자료와 같이 증명함.
위원장 중화민국54년(서기 1965년) 7월 8일.⁷⁹⁾

제주화교소학교는 건립초기 성금모금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도 화교들의 성금으로 학교의 시설보충이나 필요한 물품을 보충하고 관리하였다. 화교소학교는 그 당시 화교들의 끈끈한 네트워크 역할을 하였다. 1974년 학교 내 전화시설 설치에 성금을 냈던 학부모와 성금액이 적혀 있는 자료가 현재 제주시 삼도 2동 909번지에 위치한 제주화교소학교 교무실에 걸려있다. 이 자료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제주화교소학교 건립 이래 선조 화교 어르신들이 학교를 자주 옮겨야 하는 걱정의 시작으로 오늘날의 우뚝 솟은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비록 완벽히 갖추지는 못하고 현대화에 맞게 갖추도록 노력하였지만 유일한 전화시설이 없었다. 완벽함 속에 조금 부족하지만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화교협회와 협력하여 편리한 전화를 마련하였다. 교포사회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화교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고마우신 분들의 성함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왼쪽에 기록하였다.⁸⁰⁾

왕영민(王營民) 이천원, 송영환(宋瑩暄) 일천원, 왕환광(王輓光) 삼천원
범서진(范書進) 오천원, 송문용(宋文龍) 사천원, 이음방(李蔭芳) 사천원

79) 僑務委員會僑民學校立案證書-初字第二三〇八號 查韓國濟州華僑小學 呈請立案經審核合於 僑民學校規程之規定 准予立案特頒發證書 以資證明此證. 委員長 中華民國五十四年七月八日.

80) 濟州華僑小學校建校以來 承蒙諸多先華僑領袖心力 倡一遷再遷一建再建方有 今日巍峩高聳之校舍 雖然不够完善 但也接近現代化唯缺少電話實為美中不足 爲了廣大家長與學校取得 便利起見協會與董事會議洽架設電話一台 多蒙廣大僑胞踴躍捐獻毫無吝嗇慷慨義爭 先恐後使電話資金順利成功 爲了紀念與感謝廣大僑胞特此修以 誌永垂不朽並將諸位芳名開列於左.

양동군(楊東鍾) 일천원, 양경부(楊慶富) 이천원, 임기신(林基新) 이천원
안옥영(安郁永) 삼천원, 양경원(楊慶元) 일천원, 진전우(陳傳又) 일천원
안옥대(安郁帶) 일천원, 정여례(鄭如禮) 이천원, 양병동(楊秉銅) 일천원
양수강(楊樹疆) 삼천원, 양수명(楊樹銘) 오천원, 왕세복(王世福) 오천원
왕관인(王官仁) 오천원, 양경위(楊廣偉) 삼천원, 우선락(于先樂) 이천원
최동인(催同仁) 이천원, 이상린(李尙麟) 일천원, 소무림(蘇茂林) 오천원
발기인 왕복민(王福民)

입방인 가장회일동立榜人 家長會一同

모금담당자(募損人) 양수강(楊樹疆), 왕당보(王當寶)

중화민국 63년(서기 1974년) 7월 21일 세움.

제주화교소학교의 교육내용은 한국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덕택에 민족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중국어로 수업을 받고 중국의 역사와 지리 전통문화에 대해 배움으로서 화교 2·3세대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심을 수 있었다. 제주도 화교소학교는 화교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과외활동으로 중국의 정통 춤을 배우거나 중국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10월10일)과 같은 전통적 행사를 학교에서 가지며 학부형들도 중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⁸¹⁾

1962년부터 시작된 한라문화제에서는 제주전역 지역특유의 볼거리를 만들어 제주시의 거리를 행렬하였다.⁸²⁾ 당시 제주도의 문화는 대륙과의 교류도 지금보다 적었으며 텔레비전의 보급이 낮았던 시대로 외국문화와 접하는 기회도 드물었다. 화교가 보여주는 행렬은 당시 외국문화와 접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 행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 화교사회는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모였으며 한라문화제 행진을 하는 날은 휴일로 하였다. 준비를 하기 위한 비용은 행정으로부터 소액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화교들이 부담하였다.⁸³⁾

81)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모수분(募秀芬, 1950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양수강(楊樹疆,, 1940년생), 2008. 8.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82) 신재경, 교토장성대학,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 2000 발표, 7쪽.

83) 모수분(募秀芬, 1950년생), 2008. 10. 1. 구술자료.

양수강(楊樹疆,, 1940년생), 2008. 8.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중국어로 까오지아오(高脚)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사람들이라면 학교에서 모두 다 까오지아오를 배웠습니다. 어린애들은 거리 행진을 하고 한라문화제때 우리가 행진 하면 다른 행진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하하) 우리가 최고 인기였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 키 만한 높은 막대기에 발을 묶어서 걷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한라 문화제때 하루 행진을 위해서 한 두 달 동안 일 끝나면 다들 모여서 연습하고, 그거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그 막대기 신고 중앙로에서 시민회관 올라가는 동산 올라 갈 때는 힘들어서 (하하)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우리 화교들도 인구도 많고 제주도 지역사회 행사에도 참가하고...이제는 다들 나이들고 제주에 남아 있는 화교들도 얼마 안되니까...”⁸⁴⁾

화교의 제주 한라문화제 참가는 제주지역과 협조하기 위한 화교사회의 노력을 알 수 있다. 그 때 참가한 사람들은 그 때가 제주도 화교로써 최전성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화교의 거리행진은 1984년 제23회 한라문화제까지 참가하였다. 1985년 이후에는 화교소학교 학생들의 감소와 거리행진에서 공연할 화교인구의 노령화로 더 이상 참가가 불가능하였다.

현재 제주화교소학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모수분⁸⁵⁾씨는 1970~80년대 제주 화교 소학교의 학생수는 60여명이 넘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화교 학교의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2008년 현재 6명 뿐 이고 소학교 졸업생 해도 중·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대만으로 유학을 가거나 부산 등의 화교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내는 실정이다. 1999년부터 ‘임의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법적 지위가 안정되었지만 한국의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의 요건이 되는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화교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별도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1992년 한중수교이후 대만정부의 지원금이 단절되고 학생 수도 줄어들어서 현재 화교 소학교의 재정은 방과 후 한국학생들에게 중국어수업을 하며 유지비를 충당하고 있다.

84)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85) 모수분(慕秀芬, 1950년생), 1985년부터 20여년동안 제주 화교 학교 교사로 재직.

“우리 화교들은 교육세는 물론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교학교에 대한 보조제도가 일체 없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다 지나간 얘기 하면 뭐합니까? 화교학교에 대한 보조는 커녕 1957년 학교를 지을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지은 학교를 우리 명의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육지지역 화교학교에서는 학교명의를 한국인으로 해놨다가 한국인이 몰래 팔아먹고 이민가고 도망가고 법적 소송을 해도 끝내 화교가 저서 학교 부지를 날리는 경우도 있었어요.”⁸⁶⁾

현재 1998년 「외국인 토지소유제한」이 해제 됨에 따라 제주화교소학교는 제주화교의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제주화교소학교는 제주도에서 생겨난 유일한 소수민족의 소수언어교육기관이다. 오늘날 세계의 언어교육은 소수민족의 소수언어를 정부가 보호·존중하고 있다.⁸⁷⁾ 최근 제주에는 국제학교 신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제주사회에서 반세기이상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화교소학교를 돌아보고 육성·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화교의 경제활동

일제시대 화교 무역상들은 비단 및 삼베의 대중 무역으로 한국에서 우위에 있었다. 1926년 전체 화교 인구 46,541명 중 52%인 24,119명이 주단·포목상 등 상업에 종사할 정도로 화교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다.⁸⁸⁾ 제주도 화교 허경환(許鏡寰 1906~1962)이 1925년 제주도 입도 당시 성산포에서 친척이 하는 포목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구술자료를 토대로 1925년도 제주도에 화교가 하는 포목집이 있었음을 알수있다.⁸⁹⁾

포목집 외에 1925년 입도한 화교 중에서 제주화교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왕정춘, 장자미, 조맹례, 정계룡은 대부분 목공·석공이었다.⁹⁰⁾ 이들은 제주도의 근대식 건물인 제

86) 모수분(募秀芬, 1950년생), 제주 화교 학교 교사로 재직, 2008. 8. 10. 구술자료.

87) 신재경, 교토창성대학,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 2000, 7쪽.

88)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37쪽.

89)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18. 구술자료.

주 북초등학교와 제주 시청건물을 지을 당시 잡부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⁹¹⁾

II장의 1925년도 제주도 화교의 직업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은 상업 및 공업이며 그 외에 직업은 찾아 볼 수 없다. 상업·교통업의 종사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주도의 직업분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한반도에 상업·교통업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농업 종사자가 제주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1937~1945)과 태평양전쟁(1941~1945)시기 중국인의 신규 유입을 제한하는 등 화교무역에 제한을 두면서 화교무역은 쇠퇴하게 된다.⁹²⁾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화교들이 요식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제주도의 화교들도 중화요리점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왜 화교하면 중화요리를 떠올릴 정도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많은 것일까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전쟁과 중국 내의 공산당의 승리로 인한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중국인의 대규모 이민은 차단되었다. 한국 내 화교들은 더 이상의 외부이민은 중단된 채 이미 이주해 있는 화교중심의 자연증가로 화교의 인원이 증가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⁹³⁾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의 잔재인 화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화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한하였다. 화교들이 음식업으로 직종을 전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한국 정부의 화교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 때문이었다. 특히 외환거래 규정·무역규정·토지소유규정 등에서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다.⁹⁴⁾

화교의 80%이상이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은 자본이 적게 들어 외국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게 급선무였던 화교 1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일이었다. 이것을 화교 2~3세대가 이어받아 지금껏 운영해 오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화교 특유의 혈연 중심인 가족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활용한 것이다.

중화요리의 대표적 음식인 자장면의 유래는 1905년 인천 중구 북성동 공화춘(共和春)

90)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現 서귀포시에서 중화요리점 '덕성원' 운영, 2007. 8. 20. 구술자료.

91)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8. 10.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92) 이종우, 『한국 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1쪽.

93)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출판, 2008, 156쪽.

94) 박은경, 「한국인과 비한국인: 단일 혈통의 신화가 남긴 차별의 논리」 『당대비평』 통권19호, 생각의 나무, 2002, 278쪽.

이라는 화교가 운영하는 중화요리점에서 시작되었다. 인천부근 노동자와 일반 서민들이 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중국식 자장면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색다르게 개조한 음식이다. 화교가 밀집해 있는 인천지역에서 화교들 사이로 자장면의 조리법이 전수되며 한국화교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00년 전통의 인천 공화춘은 1980년까지 영업하다가 지금은 폐업을 한 상황이다. 인천의 공화춘은 제주도 화교소학교 건립에도 성금을 모은 자료가 있다.⁹⁵⁾

1940년대 이후 제주 지역에서도 화교들이 중화요리를 중심으로 개업하기 시작하였다. <표 9>에서는 1957년 화교소학교 건립 당시 성금자를 중심으로 그 당시 제주도 화교의 경제활동을 구술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중화요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상호의 변경이 자주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61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과 정부의 화교에 대한 중국음식에 대한 가격 인상 제한과 중국음식점에 대한 쌀밥 판매 금지 등과 같은 규제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화교는 돈이 있어도 점포를 구입할 수 없고 장사가 좀 잘되면 집주인이 집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점포를 자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⁹⁶⁾

1975년 이후에는 미국의 동양계 이민의 증가로 한국의 많은 화교들도 미국으로 이동하였다.⁹⁷⁾ 이는 제주지역 화교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에서 밀가루 도매업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왕영민(王英民, 1915년생),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던 손비윤, 왕세향, 주금장, 주금동 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⁹⁸⁾

“왕영민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산지천 부근에서 지성행이라고 하는 밀가루, 당면, 진분가루 같은 걸 파는 도매집이었어요. 왕영민이 1962년 제주화교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한라문화제도 참가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살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화교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한라문화제때 화교 거리행진 때 필요한 비용도 50%이상 그 사람이 냈고 제주화교학교에도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갔어요... 70년대 80년대 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

95) 인천시, 공화춘 선생 성금 1만원(仁川市: 共和春 先生損金貳萬圓整), 제주화교소학교 소장 자료.

96)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현 화교협회 회장, 2007. 7.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97) 박은경, 「한국인과 비한국인: 단일 혈통의 신화가 남긴 차별의 논리」 『당대비평』 통권19호, 생각의 나무, 2002, 280쪽.

98)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서귀포시에서 중화요리점 ‘덕성원’ 운영, 2007. 10. 15. 구술자료.

<표 9> 제주지역 화교의 상호변동과 경제활동(1957년)⁹⁹⁾

상호명	위치	대표자	개설시기	상호 변동
덕성원	서귀포	왕정춘 (1905~1970)	1940년	2008년 현재 그의 아들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이 덕성원 운영
지성행 (잡화상)		왕영민 (1925~?)	1940년	1980년 미국으로 이민
중흥루	제주시 우체국 앞	손비운	1940년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운임춘	성산포	이달림	1940년	자손이 성산포에서 횃집운영
한식집	관덕정 부근	장자미 (1902~1970)	1940년	아들 장경도(張景都)는 1958~1962년까지 화교소학교 교사로 근무
잡화상	중앙로 성당앞	왕세향	1945년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한양정	산지항	허경환 (1905~1962) · 여문헌 (1915~1958)	1951년	국수공장 경영(제주시 동문시장)→한림중 화요리점→명신원(1975년)→향원반점 (1977년)→대만반점(1981년)→매화반점 (1985년)
요동반점	제주시 중앙로	양낙산 (1896~1961)	1952년	유일반점→요동루→송죽원
미화천	제주은행 본점부근	정개룡 (1907~1970)	1952년	
영춘원 (제과)	산지천	여순탕	1957년	성산포로 이주하여 빵집을 개업하지만 사업실패로 1975년 사망→2008년 현재 아들은 귀화하여 개인택시 운영
대관원	모슬포	왕서인 (1927~)	1957년	왕서인(81세)와 아내 이중경(76세)은 1995년 이후 한국인에게 임대를 주고 현 재 중국 연대(蓮臺)에서 살고 있음
구풍반점	제주시 칠성로	정여례	1957년	1970년대남경반점(용담동)운영→1980년대 중국에서 사망
	제주시 산지천	주금장, 주금동	1957년	미국으로 이민
유일반점		양수명 (1920~2004)	1957년	양낙산의 네 번째 동생으로 유일반점 경 영
만춘반점	시민회관 남쪽	왕복산 (1940~1981)	1957년	
아주반점	제주시 칠성로	양승진	1960년	한국인에게 인수하고 다른지역에서 중화 요리점을 운영
송죽원	제주시 칠성로	양갱규 (1940~1983)	1970년	1970년 같은 상호로 다시 개업함. 현재 아들 양덕훈(1978년생)은 관광업에 종사
		담영경 (1920~1980)		양낙산처의 남동생 양낙산의 사업을 도 우며 살았음.

99) 허연경(1942년생), 양수강(1940년생), 왕복안(1937년생), 2008. 10. 15 구술자료와 1957년 학교설립성금자 명단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1960·70년대 한국인의 외국여행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일반여행은 친척 방문 등이 있었지만 외국에 있는 친척이 초청장에 왕복 비행기표까지 동봉하지 않으면 여권발행이 불가능한 시기였다. 회사 등에서 외국으로의 출장 및 연수 등도 있었으나 여권 발행 시 비교적 어려운 수속이 필요하였다.¹⁰⁰⁾

화교는 국적이 중국인 이유로 여권 발행이 한국인에 비해서 쉽게 발행 되었다.¹⁰¹⁾ 한국인에 비해 여권발행이 용이하여 화교는 대만은 물론 일본으로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 그 제도를 이용해 1970년대에 다수의 화교가 일본으로 돈벌이를 갔다.¹⁰²⁾ 당시 일본도 고도 성장기였기에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기였다. 제주도 화교 중에서 상당수의 남자화교는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도 단기비자이었기에 6개월에 한번은 비자를 취득하러 귀국하여야 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만으로 일시 귀국해 대만에서 일본비자를 취득하고 일본에서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일반적이었다고 한다.¹⁰³⁾

2008년 현재 화교가 직접 경영하는 음식점은 제주시에 유일반점(1958), 영성반점(1960), 임성반점(1960), 북경반점(1965), 개원(1975), 도원(1975), 대관원(1980), 아서원(1985), 홍보석(1988), 덕성원(2007) 등이 있다. 서귀포지역에서는 1940년 개업한 덕성원이 있다. 덕성원이 1940년 개업할 당시 서귀포 솔동산 부근에 미진루(美珍樓)라는 중화요리점이 1935년 당시 성업 중이었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지역 최초의 중화요리점은 불명확하다. 덕성원은 현재 제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중화요리집이다. 한림지역에는 화교 왕일광(王鎰光)이 하는 보영반점(1965)이 있다.¹⁰⁴⁾ 현재 제주 화교협회의 통계에 의한 직종별 분포도는 요식업 60%, 관광업 10%, 자영업 20%, 한의원 1%, 기타 9%에 종사하고 있다.¹⁰⁵⁾

100) 신재경, 앞의 논문, 8쪽.

101)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02)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2007. 7.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03)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18.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04)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8. 5. 2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05)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2008. 8. 17.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3. 화교에 대한 규제와 한계

제주지역 화교의 정착과정과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전체적인 한국의 화교에 대한 법령 및 정책으로 인한 화교의 사회상을 알아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법적제재가 제주화교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화교에 대한 법령 및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국 사회의 화교에 대한 차별정책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1880대~1920년대 화교의 경제 이민시기 중국에서는 군벌정치가 등장하면서 농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은 더욱 심화되고 많은 농민들은 새로운 땅과 일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자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로 이주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증하기에 이르렀다.¹⁰⁶⁾

이 같은 화교 인구의 증가와 한국인과 연대한 항일(抗日)투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일제는 거주지 제한 정책과 무역부분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일방적인 규제 정책을 펼쳤으며, 한국인과 심리적 이간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이간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항일로 서로 연대 할 수 있었고 국제 무역상에서 화상(華商)의 능력은 한중무역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¹⁰⁷⁾ 해방 후 한국 정부의 무정부적 방임상태에서 화상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화교의 한국 유입은 종식되었다.

1948년 「외국인에 대한 외환규제법」은 화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시 한국의 무역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화교 무역상에 타격이 되었다. 화교의 공식적인 외환시장 접근이 제약되면서 공식 환율보다 비싼 암시장을 통해 외환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화교무역상들은 한국인과 공동명의의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동업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회사를 포기하는 상황도 생겨났다.¹⁰⁸⁾ 또한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이주억제책으로 외국이동을 금지 시키므로 화교무역의 배경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이 어렵게 되었다. 제주지역에서도 포목

106) 박은경, 『한국 화교사회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쪽.

107) 박은경, 앞의 논문, 116쪽.

108) 박현옥·박정동,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 연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2003.

점을 운영하던 화교들도 이시기에 중화요리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시기이다. 성산포에서 ‘천생상’이라는 포목점을 운영하던 허경환(許鏡寰, 1905~1962)은 서귀포 솔동산에서 중화요리점을 개업하였다.¹⁰⁹⁾

1950년 외래 상품의 불법 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를 갖고 취해진 「창고 봉쇄령」도 창고에 많은 상품을 보관하고 있던 화교 무역상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집과 토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인 명의로 이전하지만 나중에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을 잃는 경우도 생겨난다. 어떤 화교들은 토지를 시세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도해야 했다.¹¹⁰⁾ 이 법은 1998년에 가서야 폐지되었다.

박정희 정권(1961~1979) 1962년의 「화폐개혁」도 결과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많았던 화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1968년 「토지 규제법의 개정」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외국인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토지 200평, 상업용 50평 범위 내에서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취득한 토지의 건물은 자신만 사용하고 타인에게는 임대할 수 없고 논밭과 임야의 취득도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유권을 한국인 아내나 한국인 친구의 명의로 변경해 두었다가 그들의 배신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서귀포 지역 화교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화교 2세대 왕복안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절친한 친구였던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그 땅의 소유자를 한국인 며느리의 명의로 바꾸고자 명의변경을 요구하자 5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 아라동에 위치한 양낙산 일가의 공동묘지도 한국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양씨 일가의 재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화교가 돈이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묘지를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한국인 명의를 빌려서 샀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도 우리 사느라 바빠서 그 땅의 명의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날 제주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땅이 제주도 소유인데 가족묘를 다른데로 이전하라고... 알고보니 명의를 빌렸던 한국인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 자식한테 상속하고 그 사람은 또 밀린 세금대신 우리 땅을 세금으로 낸거예요.

109)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110)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8. 8.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우린 그땅에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때부터 가족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증거는 있는데 나라에서 법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¹¹¹⁾

이와 같은 토지 재산권의 제한은 부동산 가격이 다른 자산 가격 상승을 앞지르던 한국 경제 고도성장의 시기에 화교의 재산증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화교의 제조업, 농업, 무역업 등 분야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요식업 등 소규모 서비스에 종사하게 하였다.¹¹²⁾

1973년에는 중국음식 가격 제한 조치·쌀 소비 절약을 위한 중국음식점의 밥 판매금지 조치·음식점에 대한 인정과세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음식점의 쌀밥 판매 금지령은 3개월여 만에 해제 되었지만, 「가정의례 준칙」에서 결혼식 피로연·회갑연 등 금지는 중국식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중화요리점에 대한 이러한 법적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1970년대 제주화교남자 대부분은 일본에 돈벌이를 갔다.¹¹³⁾

1990년대까지 한국은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의 귀화 억제정책을 채택하였다.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과 외국인 아버지를 둔 아이는 오직 귀화를 통해서만 한국인이 될 수 있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여자와 결혼한 외국 남자는 일정한 거주 기간이 지난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¹¹⁴⁾

화교가 일반적인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해도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교수, 교장, 교감 중에서 2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였다. 연고지가 한국이 아닌 화교들에게 이러한 인맥을 쌓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화교는 장기체류자격을 나타내는 F2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3년마다 비자를 연장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화교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을 <표 15>를 통해서 정리하였다.

111)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양낙산의 네 번째 동생 양수명의 장남, 2008. 11. 10. 구술자료.

112) 이종우, 앞의 논문 46쪽.

113)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2008. 10.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14) 장수현,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2001.

<표 10> 화교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¹¹⁵⁾

연도	법령 및 정책	내용
1950	창고 봉쇄령	외국인의 부두 창고 사용 금지로 화교무역에 악영향
1953	제1차 화폐개혁	현금을 많이 보유한 화교들에게 불리
1961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거나 한국인 부인이나 친구 명의로 바꿨다가 사기당함
1962	제2차 화폐개혁	
1968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개정	주거용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200평까지 소유 가능
1970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1가구당 1주택(200평 미만), 1점포(50평 미만)까지만 허용, 타인에게 임대 불가
1973	가정의례준칙	결혼식 피로연, 회갑연 등 금지, 중국식당에 불리하게 작용
1973	쌀밥판매 금지령	면 종류만 판매 가능, 3개월만에 취소
1998	외국인 토지소유제한 해제	외환위기 때 해외투자 유도 목적
2002	영주권 제도 도입	화교가 한국에 영주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짐
2004	주민 투표법	합법 체류 외국인의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제한적 참여 허용

1997년 외환금융위기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제한제도의 철폐로 화교의 토지 취득이 자유화되었고 영주권 제도 및 국적취득 관련 요건도 완화되었다. 영주권과 관련해서 1998년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F2비자 유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에는 영주권이 부여되는 F5비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적과 관련해서는 1997년 국적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일반귀화와 추천자격을 3급 공무원 이상에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낮추었고 부계혈통주의를 포기하고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인이면 그 자녀들은 출생 장소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는 화교 학교도 ‘임의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인정되었다.¹¹⁶⁾

115)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출판, 2008, 158쪽에서 재인용.

116) 이종우, 앞의 논문, 48쪽.

하지만 1970~1980년대에는 한국정부의 차별과 제한을 견디지 못한 화교들은 미국을 비롯한 호주 및 대만으로 이주하였다. 한국화교연합회에 의하면 60년대 말까지 4만 명을 헤아렸던 화교들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70년대 이래 외국으로 이주하였다. 미국의 남가주 지역에만 현재 약 8천 명의 한국화교 출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다.¹¹⁷⁾ 현재 미국의 유명 명소가 된 차이나타운의 유래가 어찌면 한국의 화교 차별정책을 피해 이주한 한국화교들이 근원이 아닐까 유추해 본다.¹¹⁸⁾

제주도 화교 2·3세대들 또한 대학진학과 취업을 대만 등의 해외에서 함으로서 대부분 해외에서 정착하였다. 1925년대에 경제적 이민으로 입도하였던 많은 화교들도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현재 제주지역 화교대부분은 50·60세의 노령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대만이나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각종 직업선택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화교는 중국대륙, 대만, 미국에 가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화교는 한국정부의 차별적인 대화교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한국전쟁이후 남북한이 분단되었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과 국민당 정권이 분리되면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을 때 별다른 신분증 없이 지내던 한국 화교들은 1954년 당시 중화민국 총영사관의 “화교거주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법적인 의미에서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다.¹¹⁹⁾ 한국 화교의 출신지는 대부분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냉전체제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교들은 대만국적(중화민국)을 갖게 되었다.

화교에 대한 차별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냉전체제 이데올로기에서 반공(反共)사상으로 연대할 수 있었던 한국 화교들은 1992년 8월 24일 한국정부가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함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다. 주한 중국대사관측의 강력한 항의로 화교단체들에게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靑天白日旗)의 게양을 금지시켰고 40여년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들에게 중국의 국기인 오성기(五星旗)를 받아들여야 하였다.

한중수교이후 중국 대륙과 한국은 활발한 교역과 왕래를 하면서도 화교 대부분이 대만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 중국 영사관에서도 화교에 대한 적극적 관계를 설정하는

117) 조홍윤, 「韓國華僑의 고통과 고민」 『민족과 문화』,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7, 214쪽.

118) 2008년 미국에 있는 한국출신 화교들을 중심으로 『한화세계(韓華世界)』를 창간하였다. 이는 중화 세계가 아닌 한화세계라 칭한 이유는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9) 광영초, 앞의 논문, 25쪽.

것을 망설이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화교문제에 대해 회피 내지 방임하는 쪽으로 설정된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 결국 한국화교, 대만과 중국 대륙의 분단체제, 한국정부의 삼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여전히 미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남자의 약 반수 이상이 한국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여성의 약 반수 이상이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있다. 남자가 화교인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국적으로 남고 남자가 한국인 경우는 대부분이 한국국적으로 귀화하는 경향이다.

재일 학자 강재언 교수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운동에 대해 항상 우리 정부의 화교차별 정책을 예로 들며 거부하고 있다.¹²⁰⁾ 특히 제주 출신 재일교포가 많은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표 11>에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화교의 인구수는 큰 변화없이 300여명이 밑도는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화교인구의 노령화와 대부분 젊은층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화교인구의 증가율이 한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11> 제주도 화교 인구(1999~2007년)¹²¹⁾

(단위: 명)

구분 금액	남	여	합계
1999	157	135	292
2000	149	135	284
2001	145	132	277
2002	144	136	280
2003	138	130	268
2004	137	133	270
2005	136	129	265
2006	135	124	259
2007	140	125	265
2008	138	126	264

120) 양필승, 「한국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2000.

121)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2008. 5. 10. 내부 문서 공개.

IV. 구술자료를 통해서 본 화교의 생활상

구술자료란 사료로 이용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서술에 참여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혹은 ‘역사의 민주화’ 가능성을 열고 있다.¹²²⁾ 구술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자료의 주체가 소멸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술자료 수집은 시급성을 요한다.¹²³⁾ 최근 제주도의 역사서 연구에서 구술사의 역할과 비중은 4:3연구에서 문헌사료의 한계를 채워주는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교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부족한 가운데 화교들의 구술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생애사를 통해 제주도 정착과정과 경제활동 사회적 정체성을 지키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1925년 제주에 입도하여 성산포에서 포목점 집원으로 일하였던 허경환(許鏡寰, 1905~1962)의 자손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의 구술자료를 통한 생애사와 1950년 8월 피난선을 타고 온 양낙산(楊落山, 1896~1961)의 친족인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양병립(楊秉立, 1971년생)·양덕훈(楊德訓, 1978년생)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한 양낙산의 생애사를 정리하였다.

1. 허연경(許延經)의 사례

① 부친 허경환(1905~1962)의 제주 정착과정과 경제생활

제주도 제주시 삼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허연경은 1942년 제주도 태생인 화교 2세이다. 제주도 화교 초등학교 교장을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 지냈다. 허씨는 부인과 아들 셋을 두고 있다.

허연경의 부친 허경환은 1905년 중국 산둥반도 태생으로 결혼한 후 단신으로 1925

122)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사례』, 2005, 39쪽.

123) 한국구술사연구회, 앞의 책 47쪽.

년경 제주도의 성산포항에서 친척이하는 포목점에서 비단장사를 시작하였다. 전쟁 전에는 2~3년마다 귀향하였다가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는 성산포지역에 화교의 가구수가 10세대 정도 있었다. 1936년 허경환의 부인 왕태군(王太君, 1908~1983)은 고향인 중국 산둥성에서 인천을 경유해 제주도에 왔다.

아버지 허경순은 장사를 성산포에서 서귀포의 솔동산(소나무 동산이라는 뜻, 지금 서귀포의 옛날 번화가)으로 옮겨 잡화상 '천생상(千生祥)'을 경영하였다. 취급하는 품목은 실크, 포목, 고무신, 낚시용품 등이었다.

② 제주 4·3사건과 화교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4·3사건이 일어나 많은 제주도민들이 죽었다. 그러나 화교인 허씨의 집에 청천백일기를 걸면 어느 쪽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이 허씨의 집으로 피신을 와 목숨을 구제 받고 반대파가 간 뒤 허씨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그런 사람의 수는 허씨가 어렸기에 잘 모르나 집의 마루 밑에 사람이 가득 있었던 때도 있었다는 것으로 상당수였다고 허씨는 회상하고 있다.

“그 당시 내가 5~6세 때인데 우리집 마루바닥에 낫선 사람들이 움크리고 숨어있었어.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으니깐 4·3사건때 사람들을 많이 숨겨줬다고 하더라구.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나지만 우리집 마루바닥에 낫선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 똑똑히 기억이 나지...”¹²⁴⁾

③ 한국전쟁과 경제활동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제주도의 모슬포에 육군해군훈련소가 설치되었다. 많은 외지 사람들로 붐비어 허씨일가도 모슬포로 옮겨 중화요리점 문화식당을 경영하였다. 그 당시 제주도내 대부분의 화교들은 모슬포 등지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훈련소가 사라지고 제주도로 피난 온 다른 지역 화교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갔다. 허씨일가는 다시 제주시로 옮겨 1951년 중화요리점 '한양정(漢陽亭)'을 산지항 부근에 열어 중국인 여문헌(呂文憲, 1915~1958)과 공동경영 하였다.

124)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동업자 여문헌은 중국에 본처가 있으나 한국에 온 후 재혼하였다. 그 부인이 아이라고 하는 일본인이었다. 그 아이라고 하는 일본인은 남편 여문헌이 죽은 후 1966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④ 가장이 된 허연경

부친 허경환이 1962년 허연경이 부산 화교중학교 1학년 때 사망하자 허연경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중학교과정을 어렵게 17세에 졸업하였다. 부산출신 화교와 선으로 만나 18세에 약혼하고 19세에 결혼하고 20세에 장남이 태어났다.

1961년 제정된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으로 인하여 1968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화교는 돈이 있어도 집이나 재산 구입은 불가능하였다. 한국인의 집을 빌려 중화요리 등의 장사가 잘 되면 다음은 집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당시 화교는 충분한 경영자금을 가지지 않았다. 당시 은행에서의 자금제공은 자영업인 한국인이라도 어려운 시기였다. 법적권리가 없는 화교에게는 당연히 더욱 어려웠다.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 같은 화교와 공동경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화교는 한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화교들 한사람 한 사람 10만원씩 30-40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장사를 하였다. 장사를 하는 본인은 매월 10만원씩 갚아가는 시스템으로 서로 협력하여 살아남았다고 한다.

허연경은 부친이 남긴 돈으로 중국인 동업자와 같이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국수면을 만들기도 하고, 제주도 해삼을 매입하여 삶아 건조시킨 후에 육지에 출하하여 돈을 벌었다. 또한 오일시장에서 유채열매·대두를 사서 육지로 출하하는 등의 장사를 1973년까지 계속하였다.

1920년대 입도하였던 화교 1세대 허경환(1905~1962년)이 1962년 사망한 후 세워진 묘비가 제주도 광령리 2리 2315번지에 있다. 비문의 사진과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동성 황현 황산관

중화민국설립전 6년(1905년) 1월 19일 태생으로 중화민국 51년((1962년) 4월 29일 생을 마쳤다. 오호 기르고 보살핀 은혜는 영원하고 먹이고 낳은 마음 영원히 잊기 어렵다. 봉양하고자 하나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비통한 마음뿐이다. 백골이 다른나라에 있으니 언제면 고향에 돌아갈고.¹²⁵⁾

산동성 황현 황산관 故 회장 허경환 호 해정의 묘비. 중화민국 51년(1962년) 1월 8일 허연경 세움.¹²⁵⁾

⑤ 일본으로 진출

그 후 1973년 6월에 일본에 갔다. 그 당시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친척방문 이외에는 불가능하였다. 화교인 경우는 중국국적이기에 중국여권으로 한국인보다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 30-40만원의 수속비용이 필요했다. 당시 한국의 일반 월급은 약 2-3만원으로 약 2년간 절약해서 모아야 하는 금액이었다.

그 당시 화교가 일본에 가는 것은 돈벌이가 목적이었다. 허연경은 오사카 교도의 중화요리점에서 일하였다. 하지만 3개월 비자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은 일본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국에 와서 어려운 수속을 하기 보다는 대만으로 갔다가 수속을 한 후 일본으로 재입국 하는 게 편리하였다. 허씨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동년배의 재한화교의 약 반수는 일본에 간적이 있다고 한다.

⑥ 제주에서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정체성

일본에서 조금의 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허씨는 중국빵집을 경영하고 1976년부터 중화요리 명신원(明神園)을 경영하였다. 장사는 잘 되어 연간 200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한다.

1978년 제주시의 산지천 복개지에 가게를 이전하자 장사가 번성하였다. 1979년에는 토지와 같이 점포용 건물을 구입하였고 1980년부터 대만반점이라고 하는 상호로 장사도 크게 하였다. 1979년 토지와 점포용 건물을 구입할 당시 까다로웠던 법적제제를 떠올리면 허연경은 구술자료하고 있다.

“1979년도에 잘 알고 지내던 화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내가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어. 내가 내 돈주고 집을 사는데 무슨 절차가 그리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내

125) 山東黃縣黃山館人 生於民前六年正月十九日 卒於民國五十一年四月二十九日。嗚呼顧育之恩山高水長，誕哺之心 永世難忘，欲養不得 徒自悲傷，白骨異城 何日面鄉哀哉。

126) 山東省黃縣黃山館 故會長許公諱鏡寶 甫海亭之墓碑。中華民國五十一年穀旦同許延經立。

그때 결심했지 다시는 제주도에서 집이나 땅을 사진 않겠다고... 집하나 사는데 6개월이상 절차가 걸리고 사상검증이니 뭐지 인터뷰하는데 중국에 친척들이 있느냐? 그 친척들과 아직도 연락하느냐 등... 그때 당시는 반공사회였으니까 특히 공산당이 아닐까 감시하고 의심받았지...그러니 화교들이 이땅에서 살 수가 있나? 돈 있는 화교들은 다 떠났어 미국으로..."¹²⁷⁾

1968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이 개정되었지만 주택 200평 이하와 상가 50평 이하만 구입할 수 있었다. 1980년 화교가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청 주변의 입주허가는 나오지도 않았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허가를 받기까지는 중앙정보부 및 보안대에서 사상검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였다. 건설교통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입출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등록번호의 발행과 사법사원에서 처리한 등기 하나라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등기가 불가능하였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도청→경찰→중앙정보부→보안대→시청을 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그 사이에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원금도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도 허가제도는 존속하고 있으나 기간은 짧아져 1개월로 끝난다.

2008년 현재 허연경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건물을 팔고 제주시 탑동에서 영업용 건물을 구입해 세를 주어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 제주시 신제주에 토지도 가지고 있으나 명의는 한국인으로 되어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갖는데 한계가 있고 법적체제가 너무 복잡하여 대만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지 60여년이 흘렀지만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허연경은 얘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교입니다. 중국의 산둥성 고향땅에도 몇 번 가서 친척을 찾으려고 해봤어요. 찾을 수도 없고 중국 사람들 사는 거... 뭐랄까 내가 비록 중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 가서 살려니 못 살겠어요. 정서에 안 맞고, 환경도 이상하고 그래도 우리 두 부부 제주도에서 사는 게 꽤 편해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요...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중국인이라고 이 땅에서 법으로 더 어려울 때도 살아왔는데 지금은 영주권도 생기고 투표권도 있

127)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18.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고 살기 좋아졌어요. 점점 더 좋아지겠죠”

1968년생인 장남은 현재 대만 초등학교 교사이다. 제주 화교소학교를 나와 서울 화교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을 졸업한 후 대만 공사에 지원 입대하였다. 교사 면허와 관제사 면허도 취득하여 관제사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대만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부인은 대만출신으로 대만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71년생인 차남은 제주 화교소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화교중고교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 IT관련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74년생 셋째 아들은 중학교까지 서울 화교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부터 대만에서 유학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허연경 가족들이 지금처럼 한국, 대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은 재한화교의 현실 및 한국정부의 화교정책의 현실의 모습이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만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양낙산(楊樂山)의 사례

① 제주도 정착과정

양낙산(楊樂山, 1896~1961)의 본명은 양수인(楊樹仁)이지만 호 낙산으로 더 유명하다.

양낙산은 1961년 사망하였지만 그의 이복 막내 동생 양수강(楊樹康, 1940년생)과 양수강의 아들 양병립(楊秉立, 1971년생), 세 번째 동생 양수명(楊樹銘, 1930~2004)의 아들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양낙산의 장손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그의 생애를 정리하였다.

중국 요령성(遼寧省) 장하현(長夏縣) 태생으로 해상운수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 사업의 규모는 해상에 지점과 각항에 선원을 위한 숙사를 마련할 정도의 크기였다.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피해 1946년 5월 해상호(海祥號)를 포함한 배 세척으로 요동반도에서 산둥반도로 피난했다. 1948년 10월 인천에 들어오지만 양씨 일가는 인천에서 약

2년간 낮에는 육지에서 육체노동이나 장사 등을 하고 밤에는 배를 주택으로 삼아 살아왔다. 1950년 한국전쟁까지 선원들이 월급을 요구하였지만 지불할 돈 대신 배 한척을 그들에게 넘긴다.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선원과 그 외의 사람들을 태우고 한척은 중국으로 돌아갔다.¹²⁸⁾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양씨일가와 50여명과 인천거주 화교 30여명이 동승해서 남쪽으로 향하였다. 완도 부근 청산도(靑山島)에서 북한의 선박으로 오인한 미군의 총격을 받아 네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양낙산의 장남 양병진(楊秉珍, 1920~1950년)도 사망하였다. 한국군은 중국민간인 선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박을 제주시 산지항까지 견인하였다. 그 때의 한국해군 선장은 후에 제주도의 군정도지사가 된 김영관으로 양낙산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¹²⁹⁾

해상호가 1950년 8월에 제주시 산지항에 들어왔다.¹³⁰⁾ 지금의 제주도민 사이에서도 그 때의 중국선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¹³¹⁾ 1950년 제주도 화교는 약 300명이었다.¹³²⁾ 그 중 양씨일가 50여명과 인천, 부산지역에서 피난이민을 같이 온 화교가 약 30명으로 제주화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8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었다. 1950년 해상호가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 화교의 인구를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교의 이주 형태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해상호의 제주도 입항은 지금까지의 화교이민과 다른 형태인 피난이민이었다. 초기이민은 남자만의 단순한 돈벌이 이민이었지만 피난이민은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이주한 것이었다. 1920년대의 경제이민이 아닌 1950년대에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으로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하자 그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이념적 이민이었다.¹³³⁾

②양낙산의 경제활동

해상호는 약 70톤 규모의 범선이었다. 제주도 산지항에 들어오고 나서 8년여 동안

128) 양수강(楊樹康, 1940년생), 양낙산의 막내동생, 2008. 11. 1.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29)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2008. 11. 1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30)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년 8월 17일.

131) 문태현(1942년생), 당시 8세로 제주시 산지항에 거주하였다. 2008년 10월 4일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32)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2007. 7. 1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33)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2008. 11. 10.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양씨일가의 주거가 되기도 했다. 전쟁 후 힘든 환경 속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육지로 일을 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배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배는 1965년에 한림에 있는 통조림 공장에 장작으로 팔았다. 배가 해체될 때 배의 바닥에는 물이 차서 마치 강과 같아 장어가 많이 있어 배를 산 사람은 장어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양씨일가 50여명은 제주도에 정착하지만 인천에서 함께 배를 타고 온 30여명의 화교들은 거의 인천으로 돌아갔다. 양씨일가는 인천에서 지낼 당시 배운 중화요리기술로 1951년부터 제주시 칠성로에서 유일반점을 경영하였다. 20여명의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57년 요동반점을 혼자서 개업하고 점점 성공하였다. 장사가 잘되어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때로는 집을 비우라고 하는 탓에 한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양씨는 집을 넘기고 다른 장소에서 요동루(1959년)를 경영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다른 장소에서 송죽원(1961)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1961년 6월 65세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낙산 뿐만 아니라 제주화교의 경제활동에서 왕왕 일어나는 일이다.¹³⁴⁾

“우리 화교들은 큰 욕심 없이 자기이름으로 된 집에서 가게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새야 뭐 한국인하고 똑같이 집을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집빌려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탓에 서러움이 참 많았습니다.”¹³⁵⁾

③ 양낙산의 제주화교소학교 설립 활동

양낙산은 1950년 입도이후 제주도 화교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남자위주의 경제이민이 주가 되던 제주 화교사회에서 화교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못하였다. 1950년 양낙산 일가의 피난 가족이민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화교학교설립을 필요로 하였다.

1951년 양낙산을 주축으로 제주화교사회는 학교설립을 위해 제주화교소학교를 임

134) 양수강(楊樹康, 1940년생), 2008. 11. 1.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35)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양낙산의 네 번째 동생 양수명(楊樹銘, 1940~2004)의 아들. 현재 제주시 이도 2동 1176-25번지에 위치한 유일반점 경영.

시로 운영하였다. 학교 건물이 없어 화교들의 집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였다. 학생수가 많을때는 마당이 넓은 곳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1951년부터 서울·인천·부산·목포지역을 다니며 학교기금을 모으고 1957년에는 제주시 삼도 2동 909번지에 땅을 사고 제주화교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제주화교소학교는 화교 2세대들에게 중국의 민족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주 화교사회가 학교를 중심으로 쌍십절행사를 하거나 각종 모임을 하는 구심적 역할도 하였다.¹³⁶⁾

과외활동으로 배운 까오지아오(高脚)을 통해 1962~1984년 한라문화제 거리 행진에도 참가하여 제주도민들에게 외국문화를 접하는 기회도 제공하였다.¹³⁷⁾

<사진 1> 1953년 제주화교소학교 1회 졸업사진¹³⁸⁾



1953년 제주화교초등학교 1회 졸업사진에서 양낙산의 얼굴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의 사진 맨 뒷줄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양낙산이다. 사진의 오른쪽 두 번째 줄 모자를 쓰고 있는 남학생 3명과 바로 옆의 졸업장을 들고 있는 여학생 포함 총 네 명의 1회 졸업생들이다. 이들은 제주화교소학교 졸업 후 부산에 있는 부산화교중학교에 입학하였다.¹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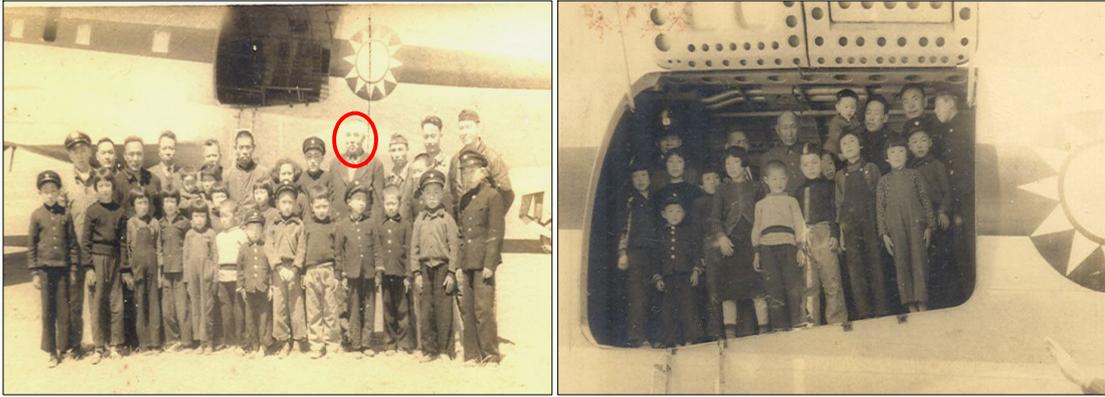
136) 양수강(楊樹康, 1940년생), 양낙산의 막내동생으로 2008. 9. 8.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137)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9. 18. 구술자료.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 2008. 11. 10. 구술자료를 토대로 정리.

138)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8. 15. 사진제공.

139)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9. 구술자료를 토대로 정리.

<사진 2> 1957년 중화민국공군기 제주공항도착기념 양낙산과 화교소학교 학생들140)



위의 사진자료는 1957년 중화민국공군기가 제주공항에 불시착하자 통역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제주화교초등학교 학생들과 견학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왼쪽 사진 맨 뒷줄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양낙산이다. 당시 제주화교소학교 교장을 맡고 있었다.

④ 양낙산의 사망(1961년)

1961년 6월 장례식을 마친 다음날 사망한 양낙산의 묘가 파헤쳐져 관이 열려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인은 사망한 후 관 속에 돈 또는 금을 함께 넣는다는 소문을 믿은 도둑이 묘를 도굴한 것이다. 중국인은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쓸 돈으로 종이로 만든 가짜 돈과 금과 비슷한 금색의 종이를 관속에 넣는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중국인은 관속에 돈과 금 등을 넣는다고 믿어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주시의 노인은 지금도 기억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¹⁴¹⁾

“그 무덤이 원래는 지금의 제주시 남초등학교 앞 동산쪽에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있고 웅성웅성 시끄러워서 따라가 봤더니 무덤이 파헤쳐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양낙산 교장의 무덤이라고 하더군요”¹⁴²⁾

140)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0. 8. 사진제공.

141) 문태현(1942년생), 제주시 건입동 1226-6번지 거주, 2008. 10. 4.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양낙산의 장남 양병진(楊秉珍, 1920~1950)은 한국전쟁 때 배에서 폭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양병진의 아들 양갱규(楊廣奎, 1945~1981)도 젊은나이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은 제주도 용담 1동 1267번지에 살고 있다. 양덕훈은 양씨일가의 장손이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제주화교소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화교중·고등학교를 나왔다. 양덕훈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손인 이유로 제주도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양덕훈은 제주지역사회에서 화교청년회의 모임도 결성하고 있다.

양낙산의 형제들도 제주도에 정착 하였는데 그들의 자손들도 제주도에 남아있다. 양낙산의 막내 동생 양수강(楊樹疆, 1940년생)은 현재 형제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로서 아들 양병립(楊秉立, 1971년생)과 신제주에서 중화요리점 홍보석을 경영하고 있다. 손자들의 유학을 위해 중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

세 번째 동생 양수명(楊樹銘, 1920~2004)의 아들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은 제주 시 시청부근에서 유일반점을 경영하고 있다. 그의 자녀들은 대만과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다. 양씨일가의 모습에서도 장손인 양덕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젊은층은 대만,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142)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2008. 11. 5. 구술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100여년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제주 지역의 소수민족인 화교에 대하여 그들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적 시각에서 검토했다. 그 동안 제주도에 정착한 화교들은 오랜 정착역사에도 불구하고 화교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화교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화교의 존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00여년 가까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이제 제주지역 사회의 일부이다. 그들은 대부분 계속 제주도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화교를 더 이상 외국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도민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다문화(多文化)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여겨진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제주도 화교의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을 논하기 앞서 전체적인 1880~1950년대 한국 화교의 역사와 정착과정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한국 전체적인 화교의 이주와 역사적 배경의 검토는 제주도 화교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는데 배경이 되었다. 제주도 화교의 정착 시기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다. 1920년대 제주도에 경제적 이유로 입도한 화교들에서 시작하여 1950년 8월 양낙산 일가의 피난선 해상호 입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주도에 처음 입도 한 화교에 대한 자료는 불명확하지만 제주도 화교의 자손들의 구술자료를 통한 자료 수집결과와 현재 제주화교소학교에 걸려있는 1951년 화교소학교설립 당시 내력에도 ‘우리화교 교포가 제주에 온지도 30여년이 지났다.’ 라는 기록으로도 확인가능한 입도시기를 1920년대로 추정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1920~1950년 제주에 정착한 화교들이 제주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화교소학교설립과 경제활동을 돌아보았다. 또한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한계가 되었던 한국사회에서 제주사회에 이르기까지 화교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도 살펴보았다. 1920년대 일제시대의 제주도 화교사회는 화교소학교의 필요가 대두 되지 못하였다. 이는 남자 위주의 경제이민이 주가 되던 화교사회에서 화교

2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아직 나타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 8월 대규모 피난선 입도 이후 양낙산 일가를 주축으로 화교 2세대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한국전쟁이후 중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에 화교소학교가 증설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1951년 본격적으로 모금운동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인천·부산·목포 등 타 지역의 성금까지 동참하게 되었다. 제주화교소학교는 중국인 특유의 중화사상과 민족적 자부심을 알리고 화교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화교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였다. 현재 제주시 삼도 2동 909번지에 제주화교소학교가 위치해 있다. 학교 내에는 학교건립 당시 내력 및 성금내역을 기재한 목판 자료가 남아있다. 1951년부터 제주화교소학교의 내력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1957년 성금이 완성된 후 성금자와 금액을 기록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또한 1951년 제작된 성금자의 명단을 토대로 제주도 화교의 경제활동도 구술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하지만 1970~80년대 화교에 대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재한화교가 대부분 미주지역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제주도 화교의 상당수도 미국, 대만 등으로 이민을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본고의 구술자료가 되었던 여러 화교들의 구술자료 중에서 1920년대 경제이민과 1950년대 피난이민 각 시기에서 특징이 있는 두 집안을 선정하여 화교의 구체적인 생활사를 정리하였다. 이는 제주도 화교에 대한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자 사례가 되었다. 1925년 제주도에 입도하여 성산포에서 포목점 점원으로 일하였던 허경환(許鏡寰, 1905~1962)의 자손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의 구술자료를 통한 생활사와 1950년 8월 피난선을 타고 온 양낙산(楊落山, 1896~1961)의 친족인 양병운(楊秉運, 1961년생)·양병립(楊秉立, 1971년생)·양덕훈(楊德訓, 1978년생)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한 양낙산의 생활사를 정리하였다.

일제강점기초인 1920년대 처음으로 제주도에 화교가 이주·정착한 이후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의 복잡한 근현대 역사에서 제주도의 소수집단인 화교의 역사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제주도에 어떻게 화교사회를 이루고 살았는지 그들이 소수 이민족으로서 제주 지역에서 자리 잡기까지의 역사와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할 도민으로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화교들이 귀화(歸化)를 하지 않는다고 또는 화교학교를 다닌다고 배타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의 입장에서 인정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문헌자료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39편 「생활상태조사(其2)」 『濟州島』, 1929.

조선총독부, 『昭和5年 朝鮮國勢査報告』, 1934.

조선총독부, 『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1937.

2. 신문자료

“중국인 피난민 내도”,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 8. 17.

“중국인 피난민에 동정 동교여직원일동미거”, 제주신보, 단기 4283년 1950. 8. 20.

3. 연구논저

1) 단행본

역사문화학회, 『지방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2007.

강재언·김동훈·하우봉·홍상덕, 『재일한국·조선인-역사와전망』, 한림심서, 2000.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출판, 2008.

박사명·박은경·신윤환·오명석·전경수·조흥국, 『동남아의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2000.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왕정연(王正延), 『조선 화교 개황』, 서울, 1930.

이문봉, 『동남아 화교기업』, 길벗, 1994.

이상태·허영란,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권』, 한길사, 1998.

_____, 『한국사 이야기 17권』, 한길사, 2003.

조정남, 『중국의 민족문제』, 교양사, 1988.

진영일, 『고대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2005.

한국사연구회,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2)논문 및 기타자료

고승제, 「화교 대한이민의 사회사적 연구」 『백산학보』, 서울, 1972.

고창석·권인혁·김용완·김종업, 「해방 후 제주연구 개관(11): 역사·고고분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곽영초, 『한국의 화교정책과 한국화교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곽병곤, 『한중수교이후 재한화교사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권인혁, 「17세기 조선의 대외인식과 하멜 표착」 『제주도사연구』 제8집, 1996.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김경국·최승현·이강복·최지현, 「중국 해외이민의 제 명칭 분석 연구」 『중국인문과학』 31호, 2003.

김기홍, 『재한 화교의 종속에 관한 연구: 재한 화교의 적응 과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_____, 「제주향토사 관련 자료의 종류와 역사적 성격」 『제주도사연구』 제7집, 제주도사연구회, 1996.

_____,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문화의 이해와 문화원의 역할」 『서귀포 문화원』 제10호, 서귀포 문화원, 1997.

_____, 「제주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

_____, 「하멜의 제주 표착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성」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14집, 동아시아 연구논집, 2003.

_____, 「21세기 제주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방안」 『서귀포 시의회』 제14호, 의회보, 1992.

- _____, 「제주의 역사와 문화」 『21세기 역사와 문화 아카데미강좌 자료모음집』, (사)제주 민예총, 2001.
- _____,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의 역사와 문화」 『탐라문화 보존회』 창간호, 탐라순력, 2000.
- _____, 「도내최초의 중등교육기관 사립제주의 신학교」 『월간 탐라』 제2호, 월간 탐라, 1994.
- _____, 「(제주의 역사) 주호에 대한 검사와 산지향 유물」 『월간 제주사』, 월간 제주, 1989.
-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KRF연구결과논문』, 한국인구학회, 1999.
- 김재기, 「중화경제권 화교네트워크의 부상과 조직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호, 대학정치학회, 2005.
- 김종규, 『한국의 화교 거주지 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한국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2008.
- 담영성(詹英盛), 『조선 말기의 청일 상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13쪽.
- 류제현, 「인천시 화교가의 성쇠과정: 1884~1992」 『문화역사지리』 제18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 박경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48호, 역사비평사, 1999.
- 박경태·장수현, 「국내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원위원회, 2004.
- 박기철, 「화교네트워크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 연구』 제20집, 중국학 연구회, 2001.
- _____, 「화교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5집, 평택대학교, 2001.
- 박은경, 「화교사회와 그 문제점」 『기독교사상』 254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_____, 『한국화교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_____,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통권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 박현옥·박정동,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 연구 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2003.
- 배국향, 『화인자본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촉진방안』,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재경, 「제주도 화교의 어제와 오늘」,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학회, 2000.
- 양필승, 「한국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2000.
- 왕쓰웨, 「한국화교의 입장에서 본 중국과의 수교, 대만과의 단교」 『기독교사상』 10월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왕춘식, 「한국 화교 2세의 질곡과 소망」 『당대비평』 제19호, 생각의나무, 2007.
- 윤수중,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경제와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5.
- _____, 「소수자 운동과 민주주의 질적향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 윤인진, 「한국 사회의 배타성: 소수 차별의 메카니즘」 『사회비평』 25호, 나남출판사, 2000.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7.
- 윤인진·이유선, 「인도네시아의 민족관계: 화교를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45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화연구소, 2002.
- 이덕훈, 「화교기업의 기업가적 특성과 문화」 『생산성논집』 11권 2호, 한국생산성학회, 1997.
- _____, 「화교의 자본형성과정과 경영전략」 『경영사학』 제16집, 한국경영사학회, 1997.
- 이병인, 「근대중국의 해외이민과 ‘고국」 『동양사학연구』 제103편, 동양사학회, 2008.
- 이옥련, 「청일전쟁 전 인천과 요코하마 화교사회」 『한국학연구』 제13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 이윤희, 「동북아시아대 인천거주 화교의 인권실태 및 정체성」 『담론 201』 제6권, 한국 사회역사학회, 2004.
- 이재광, 「한국화교의 역사와 문화정체성: 화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30집, 중국학연구회, 2004.
- 이재정, 『한국의 화교거주지 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활동(1905~1955)」 『대구사학』 제80집, 대구사학회, 2005.
- 이종우, 『한국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화승, 「전주 화교사회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고찰」 『사림』 26권, 수선사학회, 2006.
- 임채완, 「세계 화상네트워크의 성격과 발전 현황」 『세계지역연구논총』,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 임채완·박동훈, 「한국 화교의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41집, 한국동북아학회, 2006.
- 장복희, 「국제법상 소수자의 보호-한국 화교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4호, 국제인권법학회, 2001.
- 장수현, 「한국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2001.
- 전경수, 「월경소수민족으로서의 베트남 화인사회」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현대, 2000.
- 전우용, 「한국사의 특수신분: 한국근대의 화교문제」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03.
- 정영록·이장규, 「한국 화교 사회의 위상변화」 『신아세아』 제15권, 신아시아연구소, 2008.
-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근현대사 강좌』 제17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6.
- 조흥국, 「동남아 화인의 역사와 정체성」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2000.
- 조흥윤, 「한국화교의 고통과 고민」 『민족과 문화』,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7.
- 허홍호, 「화교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화과 특징」 『신아세아』, 신아시아연구소, 2007.
- 홍재현, 「화교사회의 형성과 특성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34집, 신아시아연구소,

2006.

4. 구술자료 (채록자 : 문미라)

왕복안(王福安, 1937년생), 서귀포시 정방동 덕성원 운영, 2007. 5. ~ 2008. 11. 구술 채록.

양수강(楊樹疆, 1940년생), 제주시 연동 홍보석 운영, 2008. 7. ~ 2008. 11. 구술 채록.

허연경(許延經, 1942년생), 제주시 건입동, 2008. 9. ~ 2008. 11. 구술 채록.

모수분(募秀芬, 1950년생), 1985년부터 20여년동안 제주 화교 학교 교사로 재직, 2007. 3. ~2008. 11. 구술 채록.

송복림(宋福林, 1955년생), 제주시 삼도동 아서원 운영, 현 제주화교협회 회장, 2007. 5. ~ 2008. 11. 구술 채록.

양명운(楊秉運, 1961년생), 제주시 이도2동 유일반점 운영, 2007. 5. ~ 2008. 11. 구술채록.

양명립(楊秉立, 1971년생), 제주시 연동 홍보석 운영, 2008. 7. ~ 2008. 11. 구술 채록.

양덕훈(楊德訓, 1978년생), 제주시 삼도동 양낙산의 장손, 2008. 5. ~ 2008. 11. 구술 채록.

문태현(文泰賢, 1942년생), 제주시 건입동, 한국인으로 1950년 산지향 거주, 2007. 5. ~ 2008. 11, 구술 채록.